Entertainment p/17
마블의 신데렐라 수현
metro
Sports p/21
'세기의 복싱대결' 후폭풍
“종철아 미안하데이”
민주화 수혜자 정의화, ‘고문치사은폐’ 박상옥대법관 강행
“굳이 이 사람이어야 하나
386 마지막 자존심 후벼파”
정의화 국회의장
“신세계 면세점까지 오면
남대문 장사 접어야죠”
박상옥 1987년 당시 검사
www.metroseoul.co.kr와 모바일 웹에서 확인하세요

국제 사학계 '위안부 사과 촉구' 집단성명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하원 본회의장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 중인 아베 신조 일본총리. 아베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은커녕 한국과 중국의 발전은 일본의 도움으로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연설의 나머지 대부분은 미국에 과거 전쟁을 사과하고 미국의 참전을 철저히 추종하겠다는 약속으로 채워졌다 /연합뉴스

저명한 사학자들 참여로 파장 예상… 아베 총리에 직접 전달

세계 역사학자 187명이 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정면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집단성명을 발표했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허버트 빅스(미국 빙엄턴대학), 디어도어 쿡·하루코 타야 쿡(미국 윌리엄 패터슨 대학) 등 저명한 사학자들이 참여해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은 외교경로를 통해 아베 총리에게 성명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성명의 제목이 '일본의 역사가들을 지지하는 공개서한'인 이유다.

이들은 성명에서 "20세기에 있었던 수많은 전시 성폭력과 군 주도의 성매매 사례 중에서도 (일제의) 위안부 제도는 방대한 규모와 군 차원의 조직적 관리, 그리고 일본에 점령됐거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지역의 어리고 가난하며 취약한 여성을 착취했다는 점에서 특히 두드러진다"며 "수많은 여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감금된 채 끔찍한 야만행위의 제물이 됐다는 증거는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과거의 모든 흔적에 대한 신중한 저울질과 맥락에 따른 평가를 통해서만 공정한 역사를 세울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며 "그러려면 민족 또는 성별에 의한 편견에 저항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조작, 검열, 개인적인 협박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역사 연구의 자유를 옹호하며, 모든 정부도 같은 입장을 보여도록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아베 총리를 향해 "지난 4월 미국 의회에서의 합동연설을 통해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인도적 안전의 중요성, 그리고 일본이 다른 나라들에 가했던 고통에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며 "우리는 이런 정서에 대해 찬사를 보내며 총리가 이 모든 문제에 대해 더 대담하게 행동하도록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과정은 민주사회를 더 강하게 만들고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증진한다"며 "평등권과 여성의 존엄이라는 문제가 위안부 문제의 핵심에 있는 만큼, 그 해결책은 일본과 동아시아, 그리고 전세계에서 양성 평등을 위한 역사적인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의 타깃은 아베 총리였지만 성명에는 중국과 한국에 대한 경고도 있었다. 이들은 "이 (위안부) 문제는 일본뿐 아니라 한국이나 중국의 민족주의적 공격에 의해 너무도 왜곡돼 정치인이나 언론인뿐 아니라 연구자들조차도 인도적 조건의 이해와 그것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라는 역사적 탐구의 기본 목적을 상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윤아기자 yoona@metroseoul.co.kr

"시행령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6일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특조위 측은 이날 "특별법의 취지를 위배하고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강제징용 청구권 연장 결국 불발

일제 전범기업에 의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이 결국 불발됐다. 이달 24일이 지나면 미쓰비시 등 일본의 3개 전범기업을 상대로 징용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이 사라진다.

6일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은 새누리당의 반대에 막혀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 의결도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해당 법안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일본이 조선인 강제징용 시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 시도에 대해 규탄한 결의안에 동의한 바 있다. 같은 당 소속이지만 법사위 위원들과 외통위 위원들이 다른 태도를 취한 셈이다.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가 추산하는 우리나라 징용 피해자는 780만명에 이른다. 이 중 소송을 제기한 이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피해자와 유족 252명이 2013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달 668명이 추가로 소장을 냈다. 피해자가 고령이고 개인 소송이 어려운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개인청구권 소멸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도 한 몫했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열린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민법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이 법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이 불발된 것에 대해 "일본의 전범기업에 의해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가 분명한데, 우리 민법의 소멸시효로 인해 제대로 소송을 해볼 수도 없다면 그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고 비판했다. /대전(기자 [illegible]

징용노동 한 서린 군함도…세계유산 앞세워 여행광고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들이 끌려가 강제 노동을 한 일본 하시마(일명 군함도)탄광 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라는 권고가 내려지자 이들 시설에 대한 일본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6일 요미우리신문에 미쓰비시를 활용한 군함도 여행상품 광고(왼쪽)가, 산케이신문에 군함도 등 5개 후보군을 묶은 여행상품 광고(오른쪽)가 각각 실렸다. 권고가 내려진 시설 방문자도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독도상륙·방어훈련 이달 실시

군과 해경이 이달 하순쯤 독도방어훈련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6일 "군과 해경이 이달 하순께 이틀 일정으로 올해 상반기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안다"며 "훈련 일정은 기상 여건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일본이 교과서와 외교청서(백서)에 독도를 자기들의 영토라고 억지주장을 편데 이어 한반도 지역까지 자위대의 군사활동 여건을 마련한 미·일간 새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합의된 이후 처음 열리게 된다. 또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일제강점기때 조선인 징용장소였던 7곳을 포함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23곳의 근대 산업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도록 유네스코에 권고함에 따라 한일관계 경색화가 가속되는 시점이라 더 눈길을 끈다.

한편 군 당국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라 계획된 훈련을 강도높게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훈련에는 해군 특수전여단(UDT/SEAL) 소속 특전팀과 일부 해병대 병력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병력은 기상 여건에 따라 헬기로 독도에 상륙하는 훈련도 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실시된 훈련 때는 기상이 좋지 않아 분대급 해병대 병력이 독도에 상륙하지 않았다.

이번 훈련에는 해군 초계함과 한국형 구축함 등 함정 5~6척과 해경 경비함 4척, 링스헬기, 해상초계기(P-3C), 공군 전투기 등도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1986년부터 시작된 독도방어훈련은 매년 두 차례 시행된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 진행되는 이 훈련은 독도에 접근하는 외부세력을 탐색, 저지, 퇴거하기 위해 실시된다.

/정윤아기자

"다 알고 있었으면서 청와대 이럴 수 있냐"

공무원연금 개혁안 두고 당·청 갈등 재현
김무성·유승민 의총서 靑에 노골적 불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새누리당 비주류 지도부 간 갈등이 다시 표면화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개최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청와대를 향해 원망과 섭섭함을 강하게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김 대표가 "(청와대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내용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 (협상을) 하고 나니까 이럴 수 있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의총 발언 말미에 "논의 과정에 청와대 수석이 참석하는 등 다 알고 있었는데 개혁안 통과를 요구하면서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나중에) 이런 청와대와 파쳐보겠다"고 강하게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마치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향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윽박지르는 것처럼 들렸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의 발언 직후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의총은 친박과 비박(비박근혜) 지도부 간 대결양상으로 흘렀다.

김태흠 의원은 "원내대표의 역할 그 직책이 부여한 역할에 대해 망각하는 그런 언행을 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했기 때문에 주역만 한 혹을 떼려다 머리만한 혹을 붙인 꼴이니냐. 원내지도부의 총체적 전략 부재"라고 공격했다. 이장우, 함진규 의원도 이에 가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지난 2일 여야의 합의 직후 "실무기구는 국민연금을 논의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과 직결되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했다"며 "분명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간 합의과정에서 청와대는 합의내용과 다른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 등의 발언과는 전혀 달랐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연금개악 반대 외치는 공무원노조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공무원노조 등 참가자들이 여야 야합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공적연금 강화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이들은 공적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마치고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 병력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공무원연금 '새로운' 논란

"공무원연금 20% 국민연금 투입 합의 없었다"

공무원연금 재정절감액의 20%를 국민연금 투입한다는 합의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공무원연금 특위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적자분 이선 20%를 국민연금에 쓴다는 것은 오보"라며 "연금사각지대 해소방안과 노후대비 취약계층 지원방안 마련 등에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합의서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메트로신문이 입수한 합의문은 2조에서 "사회적 기구에서는 OECD 최고수준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48.6%)을 향후 30년에 걸쳐 OECD 평균수준(12.8%)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 하에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한다"며 제4항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 절감액의 20%를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되는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1항에서는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 개선을 위한 연금 크레딧 확대 방안"을, 제2항에서는 "사회보험 지원사업 확대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제3항에서는 "기타 노후대비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합의문에는 국민연금에 투입한다는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사회적 기구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기구다.

/김서이기자 [illegible]

박상옥 인준안 직권상정하는 정의화 의장 정의화 국회의장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고 있다(위). 이날 임명동의안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 158명만 참여,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아래). /연합뉴스

박종철 서울대 후배들 "박상옥 대법관 인정 못해"

6일 오전 국회 앞에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종철의 서울대 후배들이 나서 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축소·은폐한 의혹을 받는 박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한 것이다.

이날 서울대 총학은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은폐했던 장본인"이라며 "권력 앞에 쉬이 굴복했던 비굴한 박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철회 사과, 정의화 국회의장의 인준안 직권상정 중단을 요구했다.

서울대 총학은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은 민주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며 민주주의 역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애당은 대법관 공석으로 사법절차가 무너질 것처럼 지적할 것이 아니라 사법정의가 구현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법관 임명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사회를 맡았던 이은호 서울대 언론대 학생회장은 "박종철 열사가 학교 선배라서 나온 것만은 아니다"며 "문제 많은 박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서울대 학생회는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사회 건설을 위한 새로운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기자 [illegible]

To Open or Not to Open Lotte World II

The re-opening of the Lotte World II will be decided by the 7th of this month. The opening has been delayed for almost 5 months because of safety reason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ill open experts advisory conference on the 7th. When the decision is made the aquarium and the movie theater will be available for everyone. The citizens' opinion on the re-opening is half and half. The endless accidents such as the aquarium leakage, movie theater vibration and the accident occurred in the concert hall. Lotte World II is assuring the safety of the building but on the 30th of last month the sprinkler malfunctioned and had an unexpected water show.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rdered restriction on the opening of the movie theater, the aquarium and the suspension of the concert hall construction. The visitors of Lotte World II decreased from 100 thousand to 54 thousand since the opening in April.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크리스 킴) 강사

제2롯데월드 '열어 말어'

제2롯데월드의 재개장 여부가 이르면 7일 결정된다. 제2롯데월드는 5개월 가까이 안전문제로 개장이 연기됐다.

서울시는 이날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 계획이다. 개장 결정이 나면 시민들은 제2롯데월드의 수족관, 영화관 관람이 가능해진다. 시민들은 '기대감 반 우려 반'이다. 수족관 누수, 영화관 진동, 공연장 추락 사망 사고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롯데 측은 안전을 자신하지만 지난 달 30일에도 건물 내 매장 현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오작동해 때 아닌 '물쇼'가 펼쳐지기도 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16일 제2롯데월드의 수족관과 영화관에 대한 사용제한 명령과 공연장 공사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4월 제2롯데월드 개장 초 하루평균 10만명이 넘었던 방문객 수는 5만40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입주업체들의 매출이 30~50%가량 감소했다. 고용인력도 6000명에서 4800명으로 줄었다.

PAGODA

87년 수혜자가 피 흘린 박종철을 잊었다

송병형의 다른 생각

4·19혁명은 흔히 '미완의 혁명'이라 불린다. '혁명의 피'를 흘린 이들은 학생과 시민이었지만 수혜자는 이승만정권과 오십보백보인 구시대 정치인들이었다. 이들은 분출하는 민주화 요구를 감당하지 못했고, 의지도 부족했다. 4·19를 '미완의 혁명'으로 전락시킨 빌미는 이들이 제공했다. 제2공화국의 혼란은 예고됐고, 결국 단명했다. 인적 청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우리의 아픈 역사다.

우리사회는 87년 또 다른 전환점을 맞았다. 87년 6월민주항쟁이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성과는 거의 30년을 이어간다. 6공화국은 역대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미완의 혁명'이 아닌 '87년 체제'라는 말도 나왔다. 이제는 '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그런데 때 아닌 역사의 반동(反動) 조짐이 보인다. '87년 체제'로 향하는 흐름에 저항(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했던 이가 대법관을 맡겠다고 한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87년 1월 박종철 열사의 어이없는 죽음의 진실을 규명할 책임을 맡았던 검사 중 한 명이었다. 본인은 "말석검사로서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강변하지만 거듭된 재수사는 그 자체로 직무유기라는 증거다.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장을 맡아 수사를 책임졌던 최환 변호사의 말이다.

박종철 열사의 죽음은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거듭된 재수사에도 계속되는 은폐에 모두가 분노했다.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 중앙일보 2단 기사로 알려진 다음날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발표한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은 민주화 이후인 88년에야 은폐 혐의로 구속됐다. 박 후보자가 포함된 2차 수사팀의 결론은 "은폐 혐의가 전혀 없다"였다.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박 후보자의 이 같은 과거행적이 대중에게 알려졌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은 요지부동이다. 지난 3월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임명동의안 처리를 독촉하는 편지까지 보냈다. 정 의장은 가결 부결과는 무관하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본회의 상정에 나섰다.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단독 표결을 감행하면 통과다. 사실상 가결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양 원장과 정 의장은 '87년 체제'의 수혜자다. 양 원장은 서울대 법대 66학번으로 1970년 졸업과 동시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엘리트 법관의 길을 걸었다. 부산대 의대 67학번인 정 의장은 성공한 의사로서 탄탄대로를 달리다 민주화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의해 정계에 입문했다. 그들이 성공가도를 달릴 때 주역인 80년대 학번들은 민주화를 위해 희생했다. 박종철 열사는 물론이고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인 권인숙 교수나 87년 최루탄을 맞고 사망한 이한열 열사도 이들 중 한 명이다.

역사의 수혜자가 희생자들의 피를 잊을 때 역사는 퇴행한다. '미완의 혁명'인 4·19가 이를 입증한다. 김학규 박종철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은 "박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박종철 열사만이 아니라 6월 민주항쟁에 참여한 국민들과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다. 4·19의 수혜자가 '미완의 혁명'에 책임이 있다면 양 원장과 정 의장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 /정치부장

서울메트로, 성과급 잔치하고 웬 적자 타령

기자 수첩
박선옥
<경제부 기자>

서울시 17개 산하기관이 수십조원의 빚더미 속에서도 지난 3년간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17개 산하기관의 부채는 22조50억원에 이른다.

특히 SH공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등 5개 투자기관이 전체의 95%에 달하는 21조5954억원을 지고 있다. 성과급도 총 3670억원의 90%가 넘는 3304억원을 이들 기관에서 챙겼다.

물론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5개 투자기관의 특성상 왜 빚을 지고 있냐고 무작정 나무라기는 어렵다. 부채가 17조1490억원으로 가장 많은 SH공사만 보더라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이 주된 원인이다.

성과급 역시 무턱대고 비난할 수는 없다. 성과를 냈는데 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말란 법은 없으니 말이다. 잘했을 때 칭찬을 해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빚더미 속 성과급이 논란이 되는 데는 시민들이 이들 기관의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일 게다.

SH공사 다음으로 부채 규모가 큰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는 각각 2조9532억원과 1조2555억원의 빚이 있다. 2014년 각각 1542억원과 276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을 만큼 실적이 좋지 않았고, 기관평가 등급도 '다'와 '라'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는 3년간 1368억원과 1008억원의 성과급을 임직원에게 줬다. 이익을 내도 경기 불황을 이유로 성과급은 구경도 못하는 일반 직장인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셈이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의 적자를 이유로 지하철 요금 200원 인상을 강행했다.

이들 기관의 적자는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만큼 투명하고 합리적인 근거 아래에서 한 요금 인상을 마다할 시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채와 적자에 시달리는 와중에 본인들 밥그릇부터 챙기는 모습을 이해할 시민도 많지 않을 것이다.

인사

■ 기획재정부
△국장급 전보 ▷대외경제국장 정규돈 ▷국회 기획재정위 자견 이상율

■ 한국토지신탁
△본부장 승진 ▷신탁사업2본부장 조영락 ▷전략사업본부장 이상목 ▷사업관리본부장 김봉수 △팀장 승진 ▷기획실 기획팀장 윤주열 △팀장 보임(재임) ▷경영지원본부 총무팀장 오병주 ▷경영지원본부 재무팀장 서호진 ▷건축기술본부 건축기술3팀장 김의왕

■ 법제처
△고위공무원 승진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백운중 △과장급 승진 ▷법제처 법제정책과장 박개나리 ▷기획조정관실 재정행정담당관 김현율 ...법제지원단 법제관 박미금 ...과장급 전보 ▷법제지원단 법제관 김선웅 ▷행정법제국 법제관 이상수 ▷제주특별자치도 파견 김연신 ...서기관 전보 ▷경제법제국 김하진 ▷재정실 김종훈 ▷기획조정관실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 이경준

■ 외교부
▷개발협력과장 정도황

부고

▲김춘진씨 별세, 관리(한국경제신문 문화스포츠부 부국장) 명관수(티호지 사속노래 대표)씨 부친상, 조순제(코오롱제약 세관씨) 빙부상 = 2일 오후 11시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특7호실 발인 4일 오전 10시 ☎ 02-2290-8442

▲김춘배씨 별세, 김옥수(충북제일 편집국 부국장)씨 빙부상 = 2일 오후 2시 30분 충북대병원장례식장 5호실 발인 4일 오전 8시 30분 ☎ 043-836-7002

▲정갑례씨 서울지방병무청 처장씨 별세, 김덕모(고산 성화오토텍 부회장, 전 참여 홍보담당 부사장)씨 빙부상 = 2일 오후 10시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10호실 ☎ 02-2650-2750

메리츠화재, 김용범號 승부수 통했다

1분기 당기순익 205억원 시장전망치 크게 웃돌아 90%대 손해율 개선 필요

메리츠화재가 구원투수로 영입한 김용범(사진) 사장이 취임 첫 분기에 시장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업계는 전사적인 희망퇴직과 효율성을 높인 조직개편이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 1분기 20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1% 감소한 수치지만 시장 전망치인 2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크게 웃도는 실적이다.

이번 실적에는 지난 3월 실시한 희망퇴직비용(450억원)과 장기보험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200억원) 등 비경상적 요인 740억원도 반영됐다.

이 기간 매출액(원수보험료)도 1년 전보다 8.9% 증가한 1조3743억원을 기록했다.

이 증가율은 5대 손보사 중에 가장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삼성(1.7%), 동부(5.0%), 현대(6.4%), LIG(3.4%) 등이었다.

이 같은 실적 개선에는 김 사장의 강력한 체질개선이 실효를 거두었다는 평가다.

김 사장은 지난 3월 업계의 우려 속에서 희망퇴직으로 전 임직원의 15.8%에 달하는 406명을 구조조정했다. 임원의 연봉도 평균 20% 낮췄다.

희망퇴직과 동시에 대면영업 채널의 지원조직 단순화와 영업 강화를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기존 지역본부→지역단→영업지점의 3단계 조직을 지역본부→영업지점으로 단순화했다. 기존 7본부 40지역단, 38신인육성센터, 232지점도 '11본부 39신인육성센터 220지점'으로 개편했다.

또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고객서비스를 위해 고객지원파트를 신설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법률 리스크 대응력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기능은 소비자보호파트에서 준법감시파트로 이관했다.

이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권대영 전 삼성화재 고문을 영입하기도 했다. 권 전 고문은 이달부터 메리츠화재에서 신채널전략 기획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지난 1분기 일회성 손실비용이 많았음에도 지난 3월 투자수익률 9% 등 순익을 거둔 것 자체가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이달부터는 복장자율화를 시행하고 문서작성 최소화, 불필요한 회의시간 줄이기 등 전사적인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김용범 효과를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이하 자보) 손해율이 여전히 높고 지난 분기 일회성 이익 비중도 높았기 때문이다.

지난 1분기 메리츠화재의 장기위험 손해율은 지난해보다 1.0%포인트 상승한 90.3%다. 자보 손해율도 90%대를 기록하고 있다. 통상 자보의 적정 손해율이 77%인 점을 감안하면 13%포인트 이상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일회성 이익이 많았던 점도 우려된다. 앞서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투자한 자산 처분이익(배당수익으로 인식)의 485억원이 반영됐다.

업계 관계자는 "손해율 개선과 전사적인 효율화 작업이 효과를 보기에 1분기는 짧은 시간"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기사제보 02)721-9861

생보재단, 어린이 무료 임상미술치료 상담 실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지난 5일 경기도 광명시 소재 시민체육관에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임상미술치료 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 시민들이 임상미술치료 상담을 받고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제공

국민銀, 경단녀 파트타이머 채용

KB국민은행은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파트타이머(금융권 경력단절여성 우대) 채용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마련이라는 범 사회적 노력에 동참하고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는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우수한 최우수 인력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성장 기회도 제공한다.

신청 방법은 15일까지 회사 홈페이지(www.kbstar.com)에 입사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국민은행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150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채용에 경력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한 여성 인력들이 많이 지원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이기자

플라스틱 없는 모바일카드, 5월 출시 예정

본인 확인·단말기 확인 '이중인증'

플라스틱 카드 없이 단독으로 사용 가능한 '모바일카드'가 이달 중에 등장할 예정이다. 단 모바일카드를 발급할 때는 본인 확인과 단말기 확인 등 이중인증을 거쳐야 한다.

6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바일카드의 단독 발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시 명의도용 등 부정발급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가이드라인에는 단독 발급 모바일카드의 정의와 적용 범위, 보안 절차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모바일카드를 처음 발급받을 때에는 안전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비자는 공인인증서, ARS(자동응답전화), 휴대전화 인증, 아이핀 등 안전성이 검증된 본인 확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카드사는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친 뒤 신청인 본인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모바일카드를 발급(다운로드)받을 단말기가 본인 소유 기기인지도 검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카드사는 부정발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모바일카드는 부정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후 24시간이 지나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된 모바일카드는 별도 사용등록 절차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다.

탐정식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은 "신청과 발급절차가 간편한 모바일카드의 출시로 신용카드 회원의 결제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는 모바일 결제 활성화로 이어져 향후 핀테크(FinTech) 관련 신 인접장 등 신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각 카드사에서는 개별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바일카드 약관의 제 개정과 금융당국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5월 중 해당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박미라기자 [illegible]

외환銀, '내 손 안의 모바일환전' 이벤트

8월 31일 까지 환전고객 대상

외환은행은 6월 환전고객을 위해 '내 손 안의 모바일환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에서는 다양한 국가의 지폐 속 주인공이 되어보는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형태의 쇼미더머니 디지털 캠페인이 시행된다.

고객은 이를 SNS 또는 모바일 메신저로 공유할 경우 모바일환전 전용 주요통화 무조건 70% 환율우대쿠폰을 받을 수 있다.

우대쿠폰을 이용해 환전시 여행자보험 자동가입되며 추가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티콘도 증정한다.

또 모바일 환전을 통해 미 달러화 기준 1000불 이상을 환전하고 모바일환전에 내게 SNS댓글을 남긴 고객을 추첨해 여행경비와 각종 모바일 상품권도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외환은행은 한국을 찾는 요우커 등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6월 30일까지 환율우대와 함께 외환은행 전속 모델인 하지원씨의 자필 서안이 기재된 사은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외환은행 e-금융사업부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환전 행사는 환전 편의 선두주자인 외환은행이 국내외 여행객의 편리하고 신속한 환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외국환 전도은행으로써 차별화 된 혜택으로 고객들의 변함없는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미라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61
발행·편집인 남궁 호
사장·편집인 김 공 학
편 집 국 장 강 세 준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0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중랑시 가00005

"금융회사도 핀테크 기업에 출자 가능"

금융당국 '핀테크 활성화' 추진

이달부터 금융회사도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기업에 출자할 수 있다.

또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실명확인을 할 수 있다.

6일 금융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진입규제는 한층 더 낮아지며 자금조달 지원도 활성화된다.

소규모 핀테크 기업에 대한 선불업과 PG(결제대금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 인하 등을 통해 혁신적 핀테크 기업의 활발한 시장 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신규 핀테크 기업에 대해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협조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수수 영업점에 대해선 보증료 감면 등 보증을 우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금융사들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독려키로 했다.

은행도 핀테크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은 ▲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 직 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과 ▲전자금융보조업(밴, 정보시스템 운영) ▲금융전산업(프로그램 제공·관리, 전산시스템 판매·임대, 자료 중계(처리 부가통신업무)) 등이다.

아울러 ▲빅데이터분석(신용정보 분석 개발, 빅 데이터 개발)과 ▲금융소프트웨어 개발(금융모바일 앱, 인터넷뱅킹, 금융보안) ▲금융플랫폼 운영(회원제 증권정보 제공 등) 등 신사업 부문 역시 출자 가능 대상으로 설정해 범위를 넓혔다.

핀테크 사업의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핀테크 관련 매출비중 등을 기준으로 판단키로 했다.

단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예컨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주된 업종이 핀테크일 때, 대기업인 경우는 핀테크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일 때만 출자를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유권해석을 이달 중 은행들에 전달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예외조항을 새로 만들어 책임을 부담하고자 하는 핀테크 기업은 금융사고 발생시 공동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핀테크 기술 활용에 대한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핀테크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제공할 수 있는 핀테크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금융위는 계좌 개설 때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방식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금융사기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2개 이상의 방식을 적용해 금융실명법상의 대면확인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실명확인 방식은 보안 테스트와 전산개발 과정을 거쳐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이밖에 창업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되며 점포없이 영업 가능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검색·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채널인 보험슈퍼마켓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 제공에 금융 소비자의 금융상품·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핀테크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률 개정사항은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 완료하고 하반기 중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는 등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세부과제를 지장없이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수출입銀, 부실여신 '눈덩이'

경남기업·모뉴엘 법정관리 여파

모뉴엘과 경남기업 등 기업들의 법정관리로 수출입은행의 부실여신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보증이나 대출을 받은 기업 중 2011년 이후 지금까지 법정관리에 들어간 곳은 102개다.

또 법정관리 결정 당시 기준으로 수출입은행이 이들 기업에 빌려준 돈과 보증잔액은 1조2993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의 법정관리로 사실상 떼일 위험에 놓인 돈은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회수할 수 있는 돈은 4000억원 안팎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제 수은은 102곳 중 13개 기업의 여신 358억원을 상각처리했다.

상각처리는 파산 등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진 여신을 '못 받는 돈'으로 분류하는 절차다.

같은 기간에 상환받을 가능성이 희박해 출자전환한 여신도 17곳에 206억원이나 된다.

나머지 72곳의 여신 1조736억원은 아직 처리방침이 불투명해 여기에는 경남기업에 보증과 대출로 제공한 5209억원이 포함돼 있다.

특히 수은이 2011년부터 작년 2월까지 약 3년간 경남기업에 집행된 여신은 4902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경남기업이 3차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직전인 2013년 9월 13일 당시 경남기업 故성완종 회장과 수출입은행장이었던 김용환 현 농협금융지주 회장을 만났다는 사실이 성완종 회장의 다이어리 기록에 남아 있었다"며 "김 행장 취임직전인 2010년 말 수은의 경남기업에 대한 여신 잔액은 3276억원임을 감안하면 행장 재임 당시 여신잔액이 두 배가량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모뉴엘, 우양에이치씨 그리고 경남기업까지 최근 논란이 된 굵직한 금융사고에 수출입은행 이름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며 "특히 우양에이치씨는 히든챔피언 선정 과정 등을 보면 제2의 모뉴엘의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어 "성동조선 등 조선사 여신과 관련해서도 2012년부터 계속 문제 제기해 왔으나 그때마다 수은은 출자전환만 되면 다 해결될 것처럼 강변해 왔다"며 "현재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어 수은은 내부통제와 여신사후관리 등에 그 어느때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아란기자

상생·윤리·친환경 등 '2014 사회책임보고서' 발간 신한금융그룹은 6일 지난해 사회책임경영 활동의 성과와 향후 계획이 수록된 '2014 사회책임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그룹의 사회책임경영 9대 전략과 각 전략별 원칙 체계, 주요 활동과 성과, 추진과제 및 목표가 종합적으로 소개됐다. /신한금융그룹 제공

우리은행 "올 채용인원 2배로 확대… 800명 채용"

우리은행은 올해 채용인원을 연초 계획 대비 2배 확대한 800명을 채용하겠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우리은행은 정규직 직원과 경력단절녀 채용인원으로 400여명을 계획했다.

이광구(사진) 은행장은 채용계획 확대에 대해 "저금리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비대면채널 확대로 인한 점포통폐합 등으로 신규채용 여건이 좋지 않다"면서도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입행원 채용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경단녀 채용은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최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대졸 신입행원을 포함해 정규직 직원으로 상반기 200명, 하반기 270명을 각각 채용키로 했다.

또 경력단절여성을 연중 수시로 330명을 채용하는 등 최초 계획 대비 2배인 800명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한편 우리은행은 올해도 자체 인시 프로그램인 'We언투링'을 통해 인재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We언투링은 전국을 순회하며 예비지원자에게 은행의 인재상과 전형방식을 설명하고 현장면접을 통해 우수인재를 사전에 발굴하는 채용제도다.

이와 함께 채용 후 연고가 있는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학교 출신을 우대해 선발하는 '지역선문가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백아란기자

당신의 은퇴는 쾌청합니까?
퇴직연금과 체크카드가 만났습니다
금융수익에 추가 적립혜택까지
able i max Card
퇴직연금상품
연 12%
퇴직연금 세액공제 700만원
체크카드 소득공제 30%
현대증권

유한양행, 자회사 승승장구에 성장 기대

유한킴벌리 역대 최대 실적에 한달새 시총 상승률 20% 훌쩍 증권가, 목표가 상향 조정

유한킴벌리의 시니어가 자원이다 기업광고 /유한킴벌리 제공

유한양행이 해외사업 매출 호조와 자회사인 유한킴벌리의 이익 성장 효과에 힘입어 올해 양호할 실적이 전망이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최근 공시를 통해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58억4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410억원으로 6.7%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337억4000만원으로 11.4% 증가했다.

회사 측은 "대표 품목인 B형간염 치료제 비리어드와 당뇨치료제 트라젠타, 고혈압약 트윈스타 등의 매출이 꾸준히 늘고, 원료의약품 수출도 호조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한양행의 시가총액은 한달 새 20%를 상회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가 역시 3월 중순 이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승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분법 이익 증가는 자회사인 유한킴벌리가 올해 1분기에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올렸기 때문"이라며 "이 회사는 1분기에 각각 3897억원과 602억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진단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0.5%, 39.7% 늘어난 수준이다. 유한킴벌리의 1분기 순이익도 497억원으로 27.5% 증가했다.

그는 "프리미엄 기저귀의 내수·수출 호조와 6년 만의 신임 대표이사 취임, 미래전략실 신설, 현금성 자산을 활용한 적극적인 성장 동력 확보 추진 등의 기대감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혜린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유한양행의 매출은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고, 영업이익은 5~8% 밑돌았다"면서 "주력 계열사인 유한킴벌리의 실적이 지난해 4분기에 이어 호조를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유한양행은 올 2분기에도 실적 모멘텀(성장동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 연구원은 "올 2분기 별도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7%, 15.6% 증가할 것"이라며 "유한킴벌리는 전년 동기 기저효과와 중국 중심의 수출 호조로 2분기에도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한양행의 실적이 오르자 주요 증권사들도 목표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했다.

NH투자증권은 종전 23만원이던 목표가를 30만원으로 올리고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KTB투자증권도 최근 유한양행에 대해 "유한킴벌리의 지분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며 목표가를 기존 24만원에서 27만원으로 올렸다. 신한금융투자 역시 "2분기에도 성장 지속세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목표가를 기존 23만원에서 26만원으로 높였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현대홈쇼핑 실적 부진… 2분기도 '먹구름'

1분기 영업익 전년比 22% ↓ 경기 둔화·실적 개선 불투명 전문가 투자 의견 '하향'

현대홈쇼핑이 국내 소비경기의 둔화 여파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현대홈쇼핑의 1분기 실적은 TV쇼핑과 모바일쇼핑 모두에서 미진한 성과를 내며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다. 더구나 이미 자리를 잡은 TV쇼핑은 더 이상의 구조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모바일쇼핑은 경쟁사에 밀리는 상황이어서 2분기 실적도 암울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현대홈쇼핑은 지난달 30일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286억66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7% 줄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102억7700만원으로 1.6% 늘었지만, 당기순이익은 318억9800만원으로 17.5% 감소했다.

현대홈쇼핑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자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홈쇼핑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74% 떨어진 13만5000원을 기록했다. 장중한때는 12만70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업계는 현대홈쇼핑의 주력 수익원 뒷받침해온 TV홈쇼핑의 성장 동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단기간 실적 개선은 무리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6일 현대홈쇼핑 주가는 13만원(전일대비 -3.35%)까지 떨어졌다.

여영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홈쇼핑 1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크게 하회한데 이어 2분기 영업이익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 실적 또한 전년동기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박희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분기 매출액 대비 판촉비 비중도 80.5%로 전년동기대비 2%포인트 증가할 것"이라며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7.5% 감소한 328억원이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정은미기자 tobae@

신한금융投 '첫스텝80 ELS' 등 11종 공모

신한금융투자(대표이사 강대석)는 중위험 중수익 상품의 대표주자인 '첫스텝80 시리즈 ELS' 등 11종의 상품을 오는 8일까지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ELS10816호'는 조기상환형 스텝다운 구조에 3년만기, 노낙인(No Knock In) 구조이며 KOSPI200, HSCEI, EURO STOXX50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조기상환 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기준가격의 85%(6개월, 12개월, 18개월), 80%(24개월), 75%(30개월) 이상인 경우 연 5.7%의 수익금과 원금이 상환된다. 조기상환이 안 됐을 경우 만기 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 기준가격의 60%이상이면 원금과 수익금(17.10%)이 상환된다. 만기 상환 시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하나라도 최초 기준가격의 60% 미만이면 ELS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최영식 신한금융투자 OTC부 부장은 "'첫스텝80 시리즈 ELS'는 100% 조기상환이 진행중이며 현재 모든 상품이 조기상환 가능 구간에 있다"며 "백테스트 결과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지수 급락 시에도 손실 발생확률이 0%로 안전하게 설계한 '첫스텝80 시리즈 ELS'가 증권사를 찾는 투자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김보배기자

신한생명, 조기사망·장기생존 모두 보장

'연금미리받는 종신보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준비가 미흡함에 따라 사적연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조기사망과 장기생존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신한생명의 '신한연금미리받을수있는종신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5.6%로 OECD 평균(11.0%)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이 8.1년에 불과하고 소득 대체율도 47%(40년 가입 기준) 수준으로 노후준비에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후속조치로 5개 생명보험사와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신상품 개발에 착수했다.

'신한연금미리받을수있는종신보험'은 TFT 참여 생보사 중 가장 먼저 출시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선지급 하는 기능을 탑재해 기존 종신보험의 조기사망과 장기생존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다.

연금수령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잔여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때 유족위로금으로 가입금액의 10%가 추가로 제공된다.

업계 최고 수준의 납입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다. 6대질병으로 진단 받거나 합산장해지급률 50% 이상이 되면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6대질병은 특정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등이다.

가입시점에 미래설계자금을 설정하면 사망보험금의 최대 30%까지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다.

/김형석기자 khs84041@

하이투자證, 150억 규모 ELS 등 3종 공모

하이투자증권(사장 서태환)은 7~8일 오후 1시까지 ELS 2종, DLS 1종을 총 15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

HI ELS 794호는 HSCEI 지수, 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5%(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이상이면 최대 25.20%(연 8.4%)의 수익을 지급한다.

HI ELS 795호는 KOSPI200 지수, HSCEI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12개월, 18개월), 85%(24개월, 30개월, 36개월) 이상이면 최대 21.60%(연 7.20%)의 수익을 지급된다.

HI DLS 63호는 WTI 최근월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6개월 만기 3개월 단위 자동조기상환형 DLS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5%(3개월), 90%(6개월)이상이면 최대 2.55%(연 5.10%)의 수익을 지급한다.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다. 하이투자증권 지점, HTS와 금융상품몰(www.hi-ib.com)에서 가입할 수 있다.

/김보배기자

이재용의 삼성 '연착륙'… 미래먹거리 발굴 숙제

실용주의 리더십 '호평'
전기차·핀테크 성공 의문

1년을 달려온 삼성의 이재용(사진) 체제가 연착륙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업구조 개편과 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실용적 리더십이 자리를 잡았다고 재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미래먹거리를 발굴해야 하는 등 이 부회장이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작년 5월10일부터 병원에 입원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대신해 그룹을 이끈 이 부회장은 사업구조 개편과 인수합병 등 굵직한 현안을 매듭졌다. 삼성은 지난해 11월 방위산업과 화학계열사를 한화그룹에 매각했다. 잘하는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이 부회장의 실용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은 삼성전자 주축의 전자분야, 삼성생명 중심의 금융분야, 삼성중공업 중심의 중공업·건설 등 크게 세분야로 사업구조를 탈바꿈했다.

경영스타일도 달라졌다. 삼성 내부에선 과거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유연해졌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비롯한 그룹 임원진들로부터 주요 의사결정 사안에 대해 문자와 이메일로 수시로 소통하고 카카오톡으로 의견을 주고받기도 한다.

글로벌 네트워크도 강화됐다. 이 부회장은 중국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팀 쿡 애플 CEO 등 외국의 정재계 인사들을 지난 1년간 부지런히 만났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풀어야 할 난제들도 산적하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잇는 미래먹거리 발굴이 그에게 주어진 숙제다.

실제 삼성그룹은 삼성전자가 그룹 매출의 절반 가량을 지지하는 극쏠림현상을 겪고 있다. 이중에서도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IM(IT모바일)부문이 삼성전자의 매출 절반 가량을 책임진다.

때문에 갤럭시S6 등 스마트폰이 무너지면 그룹도 크게 흔들리는 셈이다. 지난해 미국 애플과 중국 샤오미에 치여 바닥을 찍었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신성장 동력 발굴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회장도 잘 알고 있다. 때문에 신성장 동력을 찾아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 미래전략실과 삼성종합기술원은 새로운 운영체제(OS)인 타이젠(TIZEN)을 탑재한 전기차시업 참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 부회장이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은 지난 1998년 자동차사업에서 철수했지만 여전히 사업 노하우를 갖고 있고 자체 OS 타이젠과 삼성SDI의 전기차 핵심부품인 배터리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다.

그룹 수뇌부의 최종결정 보류로 삼성은 스마트폰에 이어 전기차부문에서도 예전보다 한발 늦은 후발주자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부회장은 핀테크 등 금융부문 경쟁력 제고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달 말 방한하는 세계 최대은행인 중국공상은행의 장젠칭 회장과 회동을 갖고 핀테크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업계는 아직 삼성의 브랜드파워가 전자 관련 사업과 달리 금융업에서 유독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은 스마트폰과 반도체 외에 안정적인 사업군이 사실상 없다"며 "삼성이 얼마나 핀테크 등 금융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일지 현재로선 미지수"라고 말했다.

/송정훈기자 ajh@metroseoul.co.kr

조준호 사장 복귀작 'G4' 샌드위치폰 되나

카메라 성능 차별성 미흡
가죽커버도 호불호 갈려
특색없는 성능에 시장 냉랭

"1200만대." 조준호 LG전자 모바일커뮤니케이션(MC)사업본부 사장이 전략 스마트폰 G4의 출시와 함께 밝힌 판매 목표다.

G4는 조 사장의 복귀작이다. 2000년 휴대전화 기획담당 상무를 지낸 그는 2004년부터 센다이어고 법인장(부사장)을 지내면서 초콜릿폰으로 북미 시장점유율 1위를 견인한 주역이다. 7년 만에 LG전자로 돌아온 조 사장이 새로 꺼낸 카드에 업계 안팎에서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6일 현재 출시 1주일여가 지났지만 G4에 대한 시장 반응은 자분하다. 자칫 글로벌 시장에서 애플의 아이폰6·6 플러스, 삼성전자의 갤럭시 S6·S6엣지에 눌리고 샤오미·HTC 등에 밀려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우선 LG전자가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우고 있는 카메라와 가

조준호 LG전자 MC 사업본부 사장이 지난달 28일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LG G4 공개행사에서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죽 커버만으로는 경쟁모델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G4에는 조리개값 F1.8의 후면 카메라와 12주간의 제작기간이 소요됐다는 가죽으로 뒷면을 장식했다.

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에서는 G4의 카메라 성능은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사용 환경에서 경쟁모델과의 확연한 차별성에는 물음표다.

뽐뿌 등 스마트폰 커뮤니티 등에서 진행된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G4의 사진이 월등하게 뛰어나다는 반응은 많지 않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사용되는 작은 사이즈의 사진에서는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가죽 커버도 호불호가 확연하게 갈리고 있다. 기존 메탈과 플라스틱 소재에 비해 내구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이 앞서는 상황이다. 습기가 많은 여름철을 앞두고 오염 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여기에 차별화된 성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해외 IT 매체의 성능 테스트 결과 G4 전작인 G3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성능, 배터리 사용시간이 비슷한 수준이다. G4에 탑재된 IPS 퀀텀 디스플레이 역시 아이폰6·6 플러스, 갤럭시 S6·S6엣지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폰아레나의 테스트 결과 LG G4의 배터리 사용시간과 충전시간은 대부분 경쟁 기종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한진기자 hjc@

삼성 타이젠폰, 국내 출시 갈 길 멀다

콘텐츠 개발 움직임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독자 운영체제(OS)인 타이젠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국내 시장에서 생태계 구축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삼성전자는 올해를 타이젠 OS 생태계 확장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그러나 1분기가 지난 시점에 국내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호응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해외 시장에 공을 들이는 반면 국내는 타이젠 출시를 꺼리는 모양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해 타이젠폰 Z1을 출시했으며 지난 5일 삼모바일은 타이젠 익스퍼츠를 인용해 후속 모델인 Z2의 실사진을 소개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삼성전자 타이젠 스토어를 전 세계 182개 국가에서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타이젠 OS를 적용한 스마트폰의 국내 출시는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앞서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했던 바다 OS 출시를 앞두고 콘텐츠 확보에 주력하던 움직임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앱' 카카오톡을 선보인 카카오 측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타이젠 OS에 맞춰 카카오톡 앱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같은 분위기는 국내 게임 업계도 마찬가지다. 엔씨소프트나 게임빌 등 게임 업체들은 타이젠 OS에 맞춰 게임을 개발하지 않고 있다.

킬러콘텐츠 부족으로 바다 OS의 뼈아픈 실패를 맛봤던 삼성전자가 타이젠 OS를 성공 시킬 콘텐츠를 가까운 날에 출시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성훈기자 vpir@

"올 8월 4K UHD 블루레이 표준화 완료"

김현석 삼성전자 VD사장

삼성전자가 4K UHD 블루레이의 표준화 작업이 이르면 8월 중으로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석(사진)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VD) 사장은 6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수요 사장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4K UHD 블루레이의 표준화가 BDA(블루레이 디스크협회)에서 진행 중"이라며 "오는 8~9월 쯤 표준화가 완료된다"고 밝혔다.

4K UHD블루레이는 보다 풍부한 컬러를 갖춘 고품질 4K 소스로 제작된 영상으로, 풀HD(1920X1080)보다 화질이 4배나 뛰어나 기존의 블루레이보다 생동감 있고 선명한 화질을 제공한다.

이에 4K UHD 블루레이의 표준화 작업이 완료되면 소비자들은 선명한 화질의 영상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또 삼성전자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UHD 얼라이언스(UHDA)도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김 사장은 "UHD 얼라이언스 회원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훈기자

LG전자, 프리미엄 세탁기 '블랙라벨' 출시

LG전자는 세탁력과 살균력을 강화한 프리미엄급 세탁기 '블랙라벨'(세탁용량 16㎏·사진)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제품은 2013년 상반기에 첫 출시한 블랙라벨 시리즈의 후속 제품으로 전자동 세탁기 중 국내 최초로 스팀 기능을 탑재했다.

새로 추가된 위생 40도 코스와 살균 60도 코스는 스팀을 사용해 식물성 얼룩, 동식물성 기름 등 찌든 때를 제거한다.

또한 세탁통의 물을 최대 60도까지 가열하고 회전시켜 세탁통 내부의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을 99.9%까지 제거하고 찌든 때를 없애주는 통살균 코스도 탑재했다.

블랙라벨은 '애벌+표준' 코스도 처음 탑재했다. 이 코스는 LG전자의 다이렉트 드라이브(DD) 모터의

조정밀 제어기술로 구현한 두드리기와 주무르기 동작으로 애벌 세탁을 한다. /정은성기자 sun@

해외선 '즉각리콜' 현대차 두얼굴 국내선 '추후수리'

美, 소비자 보호법 엄격…사측이 결함여부 증명해야
韓, 운전자가 미과실 입증…국토부 시정명령 무시도

국산 자동차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 해외에선 즉각적인 리콜에 들어가지만 국내에선 추후 수리에 그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문제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 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최근 북미시장에서 에어백 결함, 센서 결함, 누수 등의 문제로 엑센트, 아반떼, 제네시스 차량을 잇달아 리콜 조치했다.

에어백 결함이 드러난 엑센트를 리콜하며 현대차는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발견해 즉시 조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태도는 국내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이다.

도리어 국토부의 시정명령을 무시하기까지 한다.

일례로 현대차(기아차 포함)는 그랜저, YF쏘나타, K5, 모닝 등의 연료계 오작동, 가속 불량 등 결함에 대해 무상수리로 대응한 바 있다.

싼타페 누수, YF쏘나타 브레이크오일 누유 같은 심각한 문제에도 무상수리라는 단행했다.

미국에선 리콜을 결정하고 현지 언론보도가 나온 지 5월 뒤 국내에서 리콜을 결정하기도 했다.

당시 현대차는 순차적으로 다른 지역을 고려했을 뿐 국내를 외면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국토부 리콜명령을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그해 말에는 싼타페 리콜명령에도 이를 연비보상이라는 미명으로 둔갑시켰다.

시정기간 역시 무기한 규정을 5년으로 자체 지정했다.

이 같은 현대차의 역차별 행보는 결국 정부 당국의 규제력 차이에서 나온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미국의 경우 차량 구매 뒤 일정한 수리 기준을 넘으면 신차로 교체하도록 하는 엄격한 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문제 발생 시 이를 업체가 충분히 보장과 보상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천문학적인 액수의 벌금을 물게 한다.

이 같은 소비자 중심의 자동차 문화는 아직 우리사회에서 요원한 실정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차량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미국은 업체가 사측 잘못이 아님을 증명해야 되지만, 우리나라는 운전자가 본인 과실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정반대의 법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 문제가 단 한 건만 발생해도 바로 리콜 등 움직임에 들어간다. 우리는 이렇게 강력한 규모의 기관도 없고 정부는 소비자를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상황이 이러니 독과점인 현대차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통보를 안 해도 되는 무상수리로 넘어가고 수입차 업체들은 이를 보고 배운다"고 설명했다. /이정필기자 sense@metroseoul.co.kr

기아자동차가 6일 유넵(UNEP) 한국위원회,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D-Lab과 함께 글로벌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할 '2015 기아 에코다이나믹스 원정대'를 모집한다.

지구 살리기 함께 할 청소년 찾습니다

기아차, 해외캠프 원정대 모집

기아자동차는 유넵(UNEP)한국위원회,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D-Lab'과 함께 글로벌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할 '2015 기아 에코다이나믹스 원정대' 참가자를 6일부터 모집한다.

기아 에코다이나믹스 원정대는 국내·외 청소년들이 사막화, 야간 조명 부족 등 해외 비개발국가가 처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해보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최종 선발되는 6기 원정대원들은 몽골 또는 말레이시아에서 진행되는 2주간의 캠프에 참가한다.

현지 학생들과 팀을 이뤄 해당 국가에 필요한 친환경적인 해결책을 직접 구상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선발된 원정대원은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진행되는 몽골 여름 캠프 또는 내년 1월 중순에 진행되는 말레이시아 겨울 캠프에 참가해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기아차는 유넵한국위원회와 함께 모든 참가자들에게 공식 수료증과 봉사활동 증명서를 수여한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이날부터 6월 3일까지 공식 홈페이지(http://www.kiaecodynamics.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기아차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6월 중 서류 전형과 1박 2일의 합숙 면접을 실시한다.

7월 1일 최종 55명의 원정대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정필기자

효성 '테크텍스틸' 참가 車 부품 소재 원사 선봬

효성은 4~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산업용 섬유 전시회인 '테크텍스틸(Techtextil) 2015'에 참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효성은 시트벨트용 원사, 에어백용 원사, 탄소섬유 등을 전시해 고객 확보에 나선다.

타이어코드 제품과 자동차에 쓰이는 산업용 원사 전반에 경쟁력 확보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을 이룬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효성은 전날 직물제조업체,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등 주요 고객사 200여 명을 대상으로 '효성나이트'를 열었다. /양승갑기자 yong@

교통·생활·화재… 어린이 안전 상식왕 뽑는다

현대차, 안전 퀴즈대회

현대자동차는 어린이와 학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7회 대한민국 어린이 안전 퀴즈대회' 온라인 예선전을 키즈현대 홈페이지에서 7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현대차가 국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민·관 기업이 공동 주최하고 17개 시·도, 228개 지자체, 각종 안전 분야의 전문기관들이 참여하는 어린이 안전 퀴즈대회로 초등학생, 미취학 아동(7세 이하)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예선전은 7일부터 내달 8일까지 키즈현대 홈페이지에서 실시된다.

안전 퀴즈는 교통안전, 생활안전, 화재안전 등 어린이들이 알아야 할 9개 분야의 안전 관련 내용으로 구성됐다.

20~30개의 객관식 문제를 푼 후 고득점 순으로 성적이 우수한 어린이를 선발한다.

1회만 응시 가능하다.

안전 퀴즈의 내용은 키즈현대 홈페이지에 있는 안전 전자책(E-book)과 자료실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

예선전을 통해 미취학 부문은 지역 구분 없이 고득점자 100명을 선발해 대회 운영위원회 상장과 선물을, 초등학교 고·저학년 부문은 전국 17개 시·도별 성적우수자 각 6명(총 100명, 단 세종시는 4명)과 228개 시·군·구별 각 2명(총 456명)을 선발해 지자체장 상장을 준다.

초등학교 고·저학년 부문의 17개 시·도 수상자 중 고득점자 30명에게는 본선 진출의 기회를 제공한다.

본선 대회는 7월 12일 EBS 방송국(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진행된다. /이정필기자

BMW 공식딜러 코오롱모터스, 순천 커넥티드센터 오픈

연면적 691㎡ 지상 2층 규모

BMW 코리아(대표이사 김효준)는 자사의 공식 딜러인 코오롱모터스가 순천 커넥티드 센터(사진)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커넥티드 센터는 지리적 이건상 BMW 브랜드를 접하기 힘든 고객에게 브랜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거점 전시장이다.

BMW 코리아는 이번에 오픈한 순천 커넥티드 센터를 포함해 현재 군산과 목포, 서산에 커넥티드 센터를 운영 중이다.

광주, 김해, 구미 등 인구 30만~50만명의 중소도시 8곳 이상에 추가 개장할 예정이다.

BMW 순천 커넥티드 센터는 연면적 691㎡에 지상 2층 규모다.

1층에는 7대의 신차를 전시 할 수 있다.

스페셜 모델을 만나볼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사측은 기존의 순천 서비스센터와 1.5㎞ 거리에 위치해 판매가능 주기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4.6㎞ 거리의 남해고속도로 동순천 IC와 인접해 있다. 순천역과 순천시청과도 2~3㎞ 이내에 있어 도심과 고속도로에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전했다.

전라남도 순천시 충효로 93 (연향동)에 위치한 코오롱모터스 BMW 순천 커넥티드 센터의 영업시간은 월~금 09:00~21:00 / 토~일 09:30~21:00. 대표번호는 061-741-7301번이다. /이정필기자

'160억 자본잠식' KT 엔써즈, 매출 절반 ↓

영업도 방만… 광고선전비 3배·대손상각비 5배 늘어

KT(회장 황창규 사진)가 200억원을 들여 사들인 동영상 검색엔진 개발업체 엔써즈(대표 김길연)는 지난해 57억원의 적자를 내고 인수 후 4년 연속 자본잠식에 빠져있다. 만성 적자 구조임에도 개선에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4일 KT 계열사 엔써즈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은 26억원으로 2013년(매출액 56억원) 보다 절반이하로 뚝 떨어졌다. 영업손실도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57억원, 2013년 35억원을 기록하는 등 KT 구조조정의 구멍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만성 적자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재무구조도 나빠졌다. 인수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엔써즈는 KT 편입 후 재무 사정이 더욱 악화 일로다. 자본잠식액은 인수 전해인 2011년 16억원 수준이었지만 지속적인 영업 손실로 인해 지난해 160억원까지 늘어난 상태다. 또 부채도 2012년 185억원에서 지난해 229억원으로 증가했다.

경영이 악화되면 영업비용을 줄여야 하지만 영업비용 사용내역을 들여다보면 전혀 개선의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손상각비는 전년대비 5배, 광고선전비는 3배로 늘어나는 등 회사의 재무상태와 관련 없는 비용지출이 이어졌다.

지난해 11억원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해 2200만원이었던 전년보다 4900% 증가했다.

대손상각비는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산출한 대손추산액과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손실처리한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당사의 서비스를 거래사에게 제공하고도 돈을 못 받을 것이란 결론아래 손실로 처리됐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 기간 광고선전비는 지난해 2억3581만원을 지출해 전년(7476만원)보다 215%늘어났다. 적자를 보는 회사에 광고 선전비를 늘린 것도 눈에 띈다.

한편 KT그룹이 거느리고 있는 종속기업 중 절반 이상이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구조조정에도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룡 기업 의 면모를 여지없이 드러낸 셈이다. 취임 후 적극적인 구조조정 행보를 보이고 있는 황창규 회장이 자본잠식 계열사의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KT 관계자는 "벤처 기업으로 시작한 상태에서 수익보다는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자본도 투자하고 있고 동영상 검색 서비스는 특색 있고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문경기자 hm0108@metroseoul.co.kr

'2015 대한민국 화학산업대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 전시장 A, B홀에서 국내 유일의 화학산업 분야 종합 전시회인 '2015 대한민국화학산업대전'을 열었다.

첫 날 개막식에는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비롯해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김현대 한국석유화학협회 상근부회장, 이규호 한국화학연구원장, 김신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박승준 한국화학섬유회장, 이원철 대한석유협회 총괄본부장, 조봉현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최명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등 12명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문 2차관은 개막식 행사에서 "이번 전시회와 아시아석유화학회의가 국내 화학산업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아시아 화학산업계가 공동 발전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좋은 결실을 맺는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015 대한민국화학산업대전에 참가한 주요 인사와 관람객들이 화학업계의 신기술과 첨단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박상남기자

국내 화학산업 신기술·첨단제품 총출동

사명을 변경한 후 처음 참석한 롯데케미칼은 10개의 테마를 구성했고 2차 전지분야인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바이오매스, 수처리 기술을 선보였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계열사 금호피앤비화학, 금호폴리켐, 금호미쓰이화학과 참여했다.

금호그룹은 전시부스 중앙에 주력인 합성고무 대신 탄소나노튜브(CNT) 전시를 배치했고 타이어용 합성고무인 SSBR과 Nd BR, 고무 TPV, 고효율 단열재 에너포르, 탄소섬유 복합소재 우레탄 자동차 시트 등을 소개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KT, 가정의 달 '응답하라, 집전화!' 이벤트

31일까지 응모 마감

KT가 가정의 달을 맞아 집전화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집전화'를 소재로 한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사연을 공모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응답하라 집전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31일 자정까지 사연과 함께 자신의 이름과 휴대전화를 이메일(kt_family@kt.com)로 보내면 된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응모자에게는 삼성 55인치 UHD TV, 갤럭시 S6(64G), 디지털카메라 NX500 등을 준다. 추가로 응모자 중 30명을 추첨해 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한다.

부모, 은사에게 전화로 안부를 전하고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댁시도 마련됐다.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에 KT 집전화로 5분이상 시외통화를 하면 대상자 50명에게 추첨으로 '백화점 상품권 5만원 권'을 제공한다. 별도의 응모절차 없이 자동 응모되며 당첨자는 22일 이후 올레닷컴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문경기자 hm0108@

SKT, 차세대 인터넷 주소 'IPv6' 글로벌 확대 앞장

차세대 인터넷 주소 체계인 'IPv6'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시킨 SK텔레콤이 글로벌 시장에서 관련 기술의 전파를 선도하고 있다.

SK텔레콤은 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베트남 IPv6의 날 2015'에서 SK텔레콤의 LTE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IPv6를 상용화한 사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만들 수 있는 주소가 2의 128제곱개로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IPv6는 생성 가능한 43억개(2의 32제곱)의 주소를 대부분 사용한 뒤에 한계에 봉착한 현재의 인터넷 주소 체계 IPv4의 대안으로 꼽힌다. 눈앞에 다가온 사물인터넷(IoT) 시대에는 사물마다 IP주소를 부여해 사물과 인터넷을 연결해야 하는 만큼 IPv6 도입은 필수적이다.

SK텔레콤은 베트남 정부가 IPv6를 국가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직접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 현지 통신사업자와 장비제조 업체 관계자들에게 IPv6를 LTE 네트워크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개발한 기술과 노하우를 설명하며 IPv6 생태계 조성이 주력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IPv6 월드 콩그레스'에서 전세계 통신 사업자들을 상대로 LTE망에서의 IPv6 상용화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6일 열린 '베트남 IPv6의 날 2015'에서 IPv6의 LTE 상용망 적용과 관련된 기술 노하우를 현지 통신사업자들과 장비제조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정문경기자

SKT, 올 1분기 영업익 4026억원

전년比 59.5% 올라

SK텔레콤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올해 1분기에 4026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6일 공시했다. 이는 작년 1분기보다 59.5% 증가한 것이다.

매출은 4조240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9% 늘었다. 매출은 상호접속요율 인하에 따른 망접속수익 감소와 가입비 폐지 영향이 있었으나 SK플래닛의 '11번가', 'Syrup' 등의 매출 증가와 아이리버와 NSOK 편입 등 자회사 성장에 힘입어 증가했다고 SK텔레콤측은 설명했다.

LTE서비스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라 SK텔레콤 LTE 가입자는 올해 3월 말 기준 1745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61%를 넘어섰다.

영업이익은 가입비 폐지, 멤버십 서비스 강화, 기변 고객 혜택 확대 등에 따른 마케팅 비용 증가로 전 분기 대비 17.8% 감소했다. 전년동기 대비로는 기저효과에 따라 59.5% 상승했다.

순이익은 SK하이닉스의 지속적인 실적 호조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6% 증가한 4427억원을 기록했으나 전분기 대비로는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12% 감소했다.

/정문경기자

남대문시장 "신세계만 없어도 살겠어요"

안내표지·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 태부족
"기업 정치인들, 시장 살린다며 전시성 홍보만"

"세월호 이후 우리 시장 상인들도 다 죽었어요. 요즘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요. 신세계 본점에 면세점이 들어오면 그나마 버티던 장사도 접어야죠."

6일 수요일 오후 2시께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 대한민국 대표 재래시장이라는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시장은 한산했다. 길을 오가는 손님은 다수 보였지만 물건을 사는 이는 드물었다. 장사가 잘되냐는 질문에 시장 상인들은 한숨만 내쉬었다.

단추를 파는 상가를 묻자 한 상인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설명한 곳을 따라가 봤지만 정확한 안내 표지가 없어 한참을 헤매야 했다. 골목골목 복잡한 시장에서 표지판 없이 원하는 물건을 찾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넓은 시장에 안내소는 단 두 곳뿐이다.

가게 앞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는 한 상인에게 요즘 장사는 잘 되냐고 물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지난해 4월 16일 가라앉은 건 세월호 뿐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남대문시장 상인 사이에서는 액세서리 상가 쪽이 그나마 장사가 잘되는 편이라고 했다. 하지만 액세서리 상가엔 손님은 없고 고개를 숙인 채 액세서리를 제작하는 상인들만 가득해 마치 공장같은 풍경이다. 적막한 분위기는 음산함 마저 든다. 한 상인에게 손님이 없는 이유를 물었다. "사실 남대문시장이 주차장이 좋아요? 그렇다고 시설이 좋아요? 화장실 한번 가려 해도 모르는 사람은 한참을 찾아다녀야 돼요. 내수경기도 죽었는데 일부러 이곳에 올 이유가 없어요"라는 답이 돌아왔다.

실제 화장실을 찾아봤다. 남대문시장 안내도에 표시돼 있는 화장실은 총 7곳이지만 야외에는 2곳뿐이다. 건물내에서 화장실을 찾으려 해도 1층에 화장실이 있는 건물은 드물었다. 이마저도 없는 건물이 많았다.

쇼핑을 하다 지쳐 잠시 앉아 쉴 곳을 찾아 봤지만 자그마한 벤치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더운 날씨에 갈증을 해소할 만한 급수대도 찾을 수 없었다.

더위를 피해 지하상가로 걸음을

국내 대표재래시장의 명성이 무색하게 한산한 남대문시장

옮겼다. 길게 내려진 계단은 젊은 사람에게도 힘든 코스였다.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갈 수 없을 것 같다. 힘들게 내려간 지하상가에서 기자를 반긴 것은 텅 빈 상가공경뿐이었다. 수년간 지하상가에서 장사를 해온 최모씨는 "시장에 여러 차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달라 건의했지만 '알아보겠다' 고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주차 시설도 찾기 어려웠다. 시장내 중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 가능 대수는 19대가 전부다. 30분 이내는 5분당 500원, 30분 이상은 5분당 650원을 받고 있었다. 차를 갖고 시장을 찾아 두시간 쇼핑을 하면 1만4700원을 내야 한다.

낙후되고 부족한 시장의 시설은 시장 바로 옆 신세계백화점을 찾게 만들었다. 1만여 개의 점포와 5만여 명의 종사자는 신세계백화점을 위한 엑스트라로 보일 정도였다.

매번 정권 교체나 대기업의 마케팅 시기에 단골로 등장하는 남대문시장이지만 수십 년째 변한 것은 없었다. 올해도 지난달 23일 신세계그룹(부회장 정용진)과 중구청(구청장 최창식)이 손잡고 남대문시장을 살리겠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공중화장실 확대, 시장홍보사업, 문화공연 유치, 상징물 설치 등 다양한 '시장살리기'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은 고작 1억원 뿐이다.

시장 한 상인은 "그저 버티고 있는 것뿐이다.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언젠가는 나라에서도 이곳 상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겠지 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세계가 하겠다고 한 대로 제대로 지원만 했어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시장 상인들은 시장 근처의 신세계백화점에 대해 대형마트처럼 재래시장 상인들을 죽이는 대기업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았다.

또 다른 상인은 "시장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한데 시설과 상품을 잘 갖춘 신세계백화점이 남대문 시장을 찾는 고객들을 빨아들이며 체계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우리를 진짜로 위한다면 본점에 면세점 유치를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유성준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신동빈회장, 美 스키협회와 MOU 체결

대한스키협회는 신동빈 회장(사진)이 6일 소공동 롯데 본사에서 미국 스키협회와 양 국가의 스키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MOU 체결식에는 미국스키협회 투르 보덴슈타이너 미국 스키·스노보드 부회장과 알파인 활강 세계랭킹 1위인 린지 본 선수가 참석했다.

이번 MOU를 통해 한·미 양국은 국가대표 알파인 선수 합동훈련, 유소년 선수 와견, 기술교류, 세부종목별 지도자 추천·해외 캠프 개최 등 양국의 스키 기술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대한스키협회는 지난 4월 크로스 컨트리종목 발전을 위해 핀란드 스키연맹과도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스노보드와 알파인 종목 강국인 미국 스키협회와 MOU를 체결하면서 설상 종목 강국들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2018 평창 동계 올림픽대회에서 국내 선수들의 메달 획득을 지원할 예정이다. /[illegible]기자 21c[illegible]

롯데홈쇼핑, 카드번호 유출 피해 차단

롯데홈쇼핑(대표 강현구)은 신한카드와 손잡고 배송지 정보와 카드 정보를 최초 1회만 등록해두면 이후 주문 시 클릭 1번으로 구매가 완료되는 '원패스(One Pass)'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개인안전정보인 '마이패스'에 자신의 배송지와 카드정보를 1번만 등록해 놓으면 이후 상품 구매시에는 '원패스 주문' 버튼 클릭 1번으로 주문이 완료되는 방식이다.

특히 고객이 가진 할인쿠폰 중 최대 할인 가격으로 자동 적용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굽네치킨, 갑질에 가맹점 폐점까지

재계약시 영업지역 축소
공정위 2억1700만원 부과

#서울 목동에서 치킨 브랜드 굽네치킨을 운영하는 A씨는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가맹 본사인 지엔푸드(대표 홍경호)로부터 영업 지역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할 것을 통보 받았다. 현 영업구역 약 2만3867세대에서 재계약 희망시 약 1만4500세대로 영업지역을 축소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받아들였지만 이후 월 매출이 37% 가까이 줄면서 폐업 위기에 몰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처럼 계약 갱신 과정에서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 영업지역을 축소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굽네치킨 브랜드 운영업체인 지엔푸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영업지역 축소를 문제 삼아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엔푸드는 2008년 12월29일부터 2010년 8월30일 사이 130개 가맹점 사업자에게 '재계약을 위한 선결사항'으로 영업지역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통보했다.

가맹점 영업지역을 줄이면 본사는 그만큼 새로운 업주를 모집할 수 있고, 로열티 등 각종 사업비를 더 거두기 때문에 이득이 된다. 가맹점주는 본사의 이러한 요구에 울며 겨자먹기로 영업지역을 종전보다 축소해 계약을 갱신했다. 이로 인해 가맹 사업자 한 곳당 영업지역의 평균 세대 수는 2만1503세대에서 1만3146세대로 감소했다. 영업지역이 줄자 가맹점 사업자의 68%(79개)는 매출이 감소했으며 10개 사업자는 결국 계약했다.

굽네치킨은 '1억뿐이 사는 사회'를 목표로 지엔푸드가 2006년 3월 선보인 치킨브랜드로 시난달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전국적으로 866여 가맹점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치킨 브랜드다. 홍경호 지엔푸드 대표(사진)는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임직원들의 노고만 치하했을 뿐 가맹점주들에 대한 감사의 말은 하지 않았다. 말로는 굽네치킨의 창립 목표를 '1억뿐이 사는 사회'라고 말해왔지만 사실은 본사의 성장만이 중요했던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제남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의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행위에 따른 제재를 받았다"며 "인기 연예인을 내세운 호화 광고 뒤에서 자영업자들의 눈물과 한숨을 먹어 치우며 성장한 탐욕스런 재벌급 프랜차이즈가 뒤늦게 그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illegible]기자 21c[illegible]

던킨도너츠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 앞에서 '블루큐브' 음료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이 음료는 레몬 맛의 파란색 젤리를 청기에 제공한 것을 본 것이 특징이다. /손진영기자 son@

가짜 백수오 후폭풍

건강기능식품 불신 확산 5월 대목 앞두고 전전긍긍

'가짜 백수오' 논란이 수그러들 지 않으며 어버이날·스승의날 등 최대 성수기를 앞두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6일 A마트에 따르면 백수오 사태가 처음 발생(4월22일)한 주간의 건강식품 매출 신장률은 전 주에 비해 30%가까이 줄었다.

B마트에서도 지난달 22~25일 나흘간 건강기능식품 매출은 일주일 전보다 8.6% 감소했다. C홈쇼핑에서도 4월 건강기능식품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가량 역신장했다.

관련 업계는 가짜 백수오 논란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불신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장 환경이 더욱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백수오만 가짜겠느냐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최대의 걱정"이라며 "5월은 건강기능식품이 많이 팔리는 대목인데 건강식품 자체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시중에 판매된 백수오 관련 건강기능식품 /연합뉴스 제공

다만 전통적인 건강기능식품인 홍삼의 판매는 아직까진 긍정적이다. 홍삼 판매 업체 관계자는 "가짜 백수오 논란으로 타격은 없다. 매출이 전년과 비슷하다"며 "하지만 시장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도 나온다. 건강기능식품은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검증 시스템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3년 건강기능식품의 시장규모는 1조7920억원으로 2009년의 1조1600억원에 비해 54.5%나 커져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기검사 규정도 미비한데다 제조·수입업체의 자진신고나 소비자 제보 없이는 문제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이번 가짜 백수오 논란으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metroseoul.co.kr

파리바게뜨, 美 공략 박차

맨해튼 6번째 매장 출점 하반기 중 가맹사업 시작

SPC그룹(회장 허영인)은 미국 뉴욕 파크애비뉴에 맨해튼 6번째 파리바게뜨 매장인 '파크애비뉴 23번가점'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파리바게뜨 파크애비뉴 23번가점은 300.7㎡ 규모의 카페형 베이커리다. 맨해튼의 대표적인 상업지구인 유니언스퀘어와 고급주택가 그래머시 지역의 교차점에 위치했다.

앞서 SPC그룹은 맨해튼 인근에서 가장 트렌디한 상권으로 부상하고 있는 브루클린 다운타운에 237.1㎡규모의 파리바게뜨 '브루클린 코트스트리트점'을 개점했

/SPC그룹 제공

나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하반기 가맹사업을 앞두고 맨해튼 주요 상권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향후 맨해튼 및 그 인근 지역으로도 출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PC그룹은 현재 미국 전역에 42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중 가맹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보라기자 bora@

CJ "학교급식에 알래스카 연어"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은 CJ 알래스카 연어'가 학교 급식 메뉴로 채택됐다고 6일 밝혔다.

CJ 알래스카 연어는 최근 서울·경기·강원·충청 등 총 7개 지역 67개 학교의 급식 메뉴로 선정됐다. 참치 통조림 대비 가격이 비싸고 인지도가 낮지만 건강한 메뉴 개발에 고민이 많은 영양사들이 연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CJ제일제당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메뉴 샘플링 및 레시피 소개, 제품 세미나 등을 통해 연내 100개 이상의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알래스카 연어로 급식 메뉴를 프리미엄화한다'는 전략 하에 급식에 활용 가능한 건강하고 맛있는 메뉴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식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라기자 bora@

한국야쿠르트 'LOOK'다이어트 2종

한국야쿠르트(대표 고정완)는 최근 다이어트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원료를 활용한 'LOOK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2종을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LOOK 그린커피빈 다이어트'는 그린커피빈 추출물을 주원료로 사용해 체지방 감소와 신진대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비타민C가 들어있어 하루 한번 2정으로 다이어트와 항산화 효과를 한번에 관리할 수 있는 맞춤형 제품이다. 가격은 1병(500mg 60정) 2만2000원이다.

장수돌침대 "2020년 매출 2천억원 달성"

세계 30개 국에 온돌문화 체험 센터 설립 예정 사물인터넷 기술 도입 '뉴오스타' 등 신제품 공개

건강침대 전문 업체 장수돌침대가 2020년 매출 2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삼고있다. 올해를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신기술을 도입한 신제품도 출시했다.

최창환 장수돌침대 회장은 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콘크리트로 지어진 아파트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에게 장수 돌침대를 사용해 잠을 자면서도 건강을 충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2020년까지 국내 장수돌침대 매출액을 2000억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장수돌침대는 전국 130여 개 매장에서 돌침대와 흙침대를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매출액은 500억원이다. 중국을 비롯해 미주 지역, 일본 등 해외 누적 수출액은 1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장수돌침대는 2020년까지 세계 30개국에 온돌문화와 한류상품을 체험할 수 있는 센터도 설립할 계획이다. 중국에서만 3000개의 센터를 개설한다는 목표다. 대부분의 중국 내 매장에서는 돌침대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하루 방문객이 300~50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센터에서 한국 브랜드 TV로 드라마를 시청하고 돌침대를 비롯해 청소기, 컴퓨터, 가전제품 등 한국 제품을 사용하면서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관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뉴오스타'와 장수 DOL침대 '온열에어베드'도 이날 공개했다.

뉴오스타는 모바일앱으로 돌침대를 조정 할 수 있는 제품이다.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사용 가능하다. 온열에어베드는 스프링이나 솜 대신 공기를 채워 사신의 몸 상태에 맞춰 매트리스 탄력을 조절할 수 있는 침대다. 매트리스에 공기를 주입하면 수만 가 가닥으로 이뤄진 3차원 특수 섬유가 체중을 분산시켜 편안함을 느끼게한다.

한편 돌침대, 흙침대 등으로 이루어진 건강침대 시장은 매년 평균 10% 정도 성장하고 있으나 전체 침대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적다.

건강침대 시장 규모는 연간 2400억원으로 9000억원대인 전체 침대 시장의 26%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6600억원대의 매트리스 시장과 비교해도 그 규모가 절반 이상 차이가 난다. 특히 건강침대 시장은 장수돌침대(20%)와 흙표흙침대(14%)를 제외하면 64%가 중소업체 중심가 구업체로 구성돼 있다.

김정수 영업마케팅 총괄 부사장은 "중소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어 장수돌침대 짝퉁 제품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뉴오스타와 같은 획기적인 신제품이 건강침대 시장을 키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bora9653@

최창환 장수돌침대 회장이 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장수돌침대 제공

신라스테이 서대문, 명소 체험 패키지

서울 구경·문화 체험 한번에

호텔신라의 프리미엄 비즈니스호텔 신라스테이 서대문이 지난 1일 오픈을 기념해 이달 한 달간 서울의 관광 명소를 실속있게 둘러보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패키지를 선보인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바로 앞에 위치한 신라스테이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편리할 뿐 아니라 서울역에서 자동차 5분 거리에 있어 지방에서 비즈니스와 관광 목적으로 서울을 방문하는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다. 이번에 출시한 패키지도 모두 지하철로 한 정거장 거리, 도보로 10분 이내에 이동해 체험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폴링 인 서울(Falling in Seoul)' 패키지는 서울시티투어버스 티켓이 포함돼 있어 서울 관광명소 곳곳을 편리하고 실속 있게 즐길 수 있다. 시티버스 투어는 서울파노라마 코스로 지난 2일 처음 도입된 클래식 전차인 '마마리칸 클래식 트롤리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호텔에서 지하철로 한 정거장 거리인 광화문역에서 출발하는 코스로 필수 역사 관광 코스인 경복궁과 600년의 역사를 지닌 서울의 중심거리를 새롭게 재현한 광화문 도심 한복판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청계광장을 지난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쇼핑 거리인 명동과 서울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남산, 버스킹 등 젊은이들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홍대, 아름다운 캠퍼스를 느낄 수 있고 아기자기한 카페의 맛집이 많은 이대 등 서울 시내 주요 코스를 지나는 노선이다.

폴링 인 서울 패키지는 스탠다드 객실 1박과 조식 2인, 서울 시티투어 버스 티켓 2매, CGV 영화티켓 2매, '빌글리스 파우지 와인' 4종으로 구성된다. 가격은 주중, 주말, 연휴 공통 20만9000원(10% 세금 별도)이다.

다이나믹 난타(Dynamic NANTA) 패키지는 호텔과 지하철로 한 정거장에 있는 충정로 극장에서 난타공연을 즐길 수 있는 패키지다. 난타는 한국 최초의 비언어 극 공연이다. 한국의 전통 가락인 사물놀이 리듬을 다이나믹하고 코믹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연령 제한 없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패키지는 호텔신라 수준의 고급 침구가 구비된 스탠다드 객실 1박, 난타공연티켓 VIP석 2매, 신라 호텔의 맛을 담아 '프티 파크뷰'로 불리는 뷔페 레스토랑 카페(Cafe)에서의 조식 2인, 신라스테이 텀블러로 구성된다. 오는 8일부터 진행되는 다이나믹 난타 패키지의 가격은 주중, 주말, 연휴 공통 21만9000원(10% 세금 별도)이다.

그랜드 오프닝(Grand Opening) 패키지는 특별 선물이 포함된 오픈 기념 패키지다. 스탠다드 객실 1박, 뷔페 레스토랑 카페 2인 조식, 특별 선물인 신라스테이 시그니처 베어로 구성된다. 가격은 주중 16만9000원, 주말 18만9000원, 공휴일 19만9000원(10% 세금별도)이다. 객실 예약 문의 02-2230-3000, www.shillastay.com

/김은비기자 21cindun@metroseoul.co.kr

이화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과 교류 강화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이순남)이 국립중앙의료원(의료원장 안명옥)과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교류 협력에 들어갔다.

양 기관은 지난 30일 이대목동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상호 지원 및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수 의료진 진료 교류를 활성화하고 임상, 기초 분야 연구와 학술 교류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순남 이화의료원장(왼쪽 네번째)와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양기관 주요 보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화의료원 제공

코레일관광개발 '오페라 열차' 출시

코레일관광개발(대표 이건태)이 부산국제야외오페라페스티벌과 함께하는 오페라열차를 출시했다.

오는 28~31일까지 열리는 부산국제야외오페라페스티벌은 부산 문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세계 최정상의 성악가들이 꾸미는 축제다.

부산국제야외오페라페스티벌과 함께하는 오페라 열차는 부산 자유여행과 부산시티투어가 각각 연계된 1박2일 코스와 경주에서 부산 지천까지 2박 3일 동안 레일크루즈 차량으로 전국을 일주하는 명품 관광패키지로 즐길 수 있다.

스탠포드호텔 '부모님 데이' 보양식 선봬

스탠포드호텔의 뷔페 레스토랑 카페스탠포드가 이달 말까지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 은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가정의 달 프로모션을 편다.

6일부터 10일까지는 '부모님 데이(DAY)'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스페셜 보양식 메뉴가 제공된다. 순환계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당귀와 감초를 넣은 한방 보쌈, 당귀 든 불고기, 녹두 나지심계탕 등을 맛볼 수 있다.

스승님 데이(Day)인 11일부터 15일까지는 선생님·교직원과 동반 방문 시 최대 20인까지 20% 할인 혜택이 있다.

예약 문의 02-6016-0080

KRT "유럽인의 로망 '코트다쥐르'서 힐링여행"

업계 첫 남프랑스 특화 상품

여행의 차이를 만드는 여행사 KRT(대표이사 정명조, www.krt.co.kr)가 유럽인들의 로망인 남프랑스와 서유럽 주요 지역을 접목한 상품을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KRT에서 출시한 이번 상품은 기존 서유럽의 대표 관광 코스에 유럽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휴양지로 알려진 남프랑스 코트다쥐르 코스를 접목시켜 여행 일정의 차별화를 둔 점이 특징이다.

프랑스 남동부에 위치한 코트다쥐르는 지리적으로 이탈리아의 리비에라로부터 서쪽으로 이어지고, 알프마리팀 주의 지중해 해안을 따라 망통, 모나코, 니스, 앙티브와 칸에 걸친 지역을 말한다.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유럽인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휴양 관광지로 손꼽히는 곳이다. 코발트 빛 바다와 숨이 멎을 듯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닌 지역으로 명성이 높다. 많은 예술가들이 작품활동을 하고 있어 풍부한 예술적 볼거리들이 많은 감성 휴양지로 각광 받고 있다. 윈스턴 처칠이 자주 찾던 휴양지였고, 코코샤넬이 별장에 머물며 자서전을 썼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이번 여행 상품에는 지중해의 꽃이라 불리는 니스와 멋스런 지중해와 하늘이 맞닿아 있는 에즈 빌리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인 모나코 공국까지 들어 있다. 따라서 여행객들이 코트다쥐르의 명성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품을 기획한 KRT 유럽팀 담당자는 "기존 정형화된 서유럽 상품과 달리 차별화된 일정의 서유럽 여행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흔히 접할 수 없는 남프랑스 코스를 접목시킨 상품을 기획하게 됐다"며 "유럽 여행객들에게 보다 큰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치선기자 chisunt@

남프랑스 휴양지 니스

"어르신께 감사 선물 드려요"

강강술래, 어버이날 65세 이상 사은품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는 어버이날(8일) 매장을 찾은 65세 이상 방문고객에게 선착순으로 타월을 사은품으로 준다.(소진시까지)

씀씀이가 큰 가정의 달을 맞아 알뜰하게 가족외식을 즐길 수 있도록 주말에 서초와 여의도점은 한우모둠구이·왕양념갈비·한우궁중불고기를, 역삼점은 왕양념갈비 메뉴를 2인분 시키면 1인분을 추가 증정한다.

15일까지 온라인쇼핑몰(www.sullae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소용량박스(350ml·10팩)는 2만5200원, 중용량박스(500ml·10팩)는 2만8600원, 대용량박스(800ml·10팩)는 4만3200원에 각각 60% 할인 판매한다.

또 어버이날 감사세트(한우불고기500g+한돈양념500g+돼지양념750g+오리양념520g)는 36% 할인된 6만원, 영양만점세트(칠절한우떡갈비360g+흑임자한돈너비아니360g+통등심돈가스720g)는 40% 할인된 4만2000원에 판매한다.

이달 말까지 온라이지(sulla.com)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보리미 찰보리빵 선물세트(40인) 도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김보라기자 bora9613@

그린벨트 입지규제, 45년 만에 대폭 완화

지역특산물 판매 시설 허용 공장 건폐율 20%까지 증축

정부가 까다롭게 관리하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입지규제와 해제절차를 지정 45년 만에 대폭 완화한다. 또 도시 내 노후화된 터미널부지, 공구상가 등에 민간자본으로 복합단지나 빌딩을 지어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정부 주도로 운영해오던 그린벨트의 관리에 융통성을 부여, 입지 건축 규제를 대폭 풀어주기로 했다. 도시 확산 방지·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1971년 최초로 그린벨트를 지정한 이후 45년이 지남에 따라 그린벨트 제도를 재편가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

지금까지 정부가 주택공급 등 국책사업과 지자체 지역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해 '해제' 중심으로 활용·관리해왔다면 앞으로는 주민불편 해소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그린벨트 지역에서 제기됐던 주민 민원을 수용해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우선 그린벨트 내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체험 등을 위한 시설을 허용한다. 또 취락지구 내 음식점은 건폐율 40%, 용적률 160%까지 건축 규제를 푼다.

아울러 5년 이상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됐던 주택·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등의 설치 기준을 완화한다.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던 공장에 한해 기존부지 내에서 건폐율 20%까지 증축을 허가할 방침이다.

불법 축사 등의 건축물이 난립된 곳도 주민들이 직접 정비하고 30%

국토교통부가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입지규제와 해제절차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연합뉴스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하는 경우 물류창고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다만 이 제도는 오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그린벨트 경계지역에 대한 해제 요건도 완화한다.

먼저 취락지구 해제로 인근과 단절된 그린벨트와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로 섬처럼 남아 있는 1000㎡ 이하의 그린벨트를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소규모 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30만㎡ 이하의 개발사업을 할 때 국토부가 보유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키로 했다. 국토부의 별도 해제 절차 없이도 지자체가 해제와 개발계획 수립을 한꺼번에 가능해 해제와 개발계획 수립 기간이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그린벨트 관련 규제완화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해제지침 개정 등을 거쳐 오는 9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도시의 노후화된 물류터미널, 유통업무시설 등의 도시규제를 대폭 완화해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를 조성, 생활물류 인프라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교통분야는 오는 2020년까지 목적지까지 스스로 알아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평창올림픽 기간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선옥기자 psoq920@metroseoul.co.kr

22조 '빚더미' 서울시 산하기관, 성과급 잔치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22조원이 넘는 부채를 쌓아놓고도 최근 3년간 임직원에게 3560억원의 성과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17개 산하기관의 부채는 22조 50억원에 이른다.

특히 SH공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등 5개 투자기관의 부채가 전체의 99%인 21조5994억원에 달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서울시 17개 산하기관은 2012~2014년 3년간 357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SH공사 등 5개 투자기관은 부채뿐 아니라 성과급도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 기관은 같은 기간 3304억원, 임직원 1인당 평균 1735만원의 성과급을 챙겼다.

1명당 성과급은 농수산식품공사 2297만원, 서울메트로 2031만원, 서울도시철도 1522만원, 서울시설관리공단 1391만원, SH공사 945만원 순으로 많았다.

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제도도 유명무실했다.

2013년 기관 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은 서울메트로는 기관장 260%, 직원 140%의 성과급을 받았다. 당시 부채는 3조 3035억원, 전년도 영업적자는 1723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라' 등급을 받은 서울도시철도 역시 3년간 부채가 증가하고, 전년도 2658억원의 적자를 냈음에도 기관장 직원 모두 성과급 100% 이상을 수령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에서 최하 수준인 4등급을 받았다. 여기에 3년 연속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이 계속 줄었는데도 기관장은 280%, 직원은 195%의 성과급을 받았다.

투자기관 외 12개 출연기관에서는 기관 평가는 나쁜데 기관장 평가는 좋은 예들이 드러났다.

서울의료원은 최근 3년간 수백억원대의 적자를 내고 기관 평가도 '나~다' 등급에 그쳤다. 그러나 기관장 평가는 3년 연속 A를 기록하며 성과급도 직원보다 2배가량 더 지급됐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역시 수백억원대의 적자에 최근 2년간 기관평가 '나', 국민권익위 청렴도 4등급임에도 기관장은 최고 등급은 S로 평가됐다. 성과급도 최대 수준인 300%가 책정됐다.

이 외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도 '나~다' 수준의 기관 평가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A등급을 유지하고 성과급 비율도 직원보다 높았다.

이노근 의원은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산하기관이 성과급 제도 운영을 부실하게 해왔다"며 "이는 곧 시민 세금 낭비로 이어지는 만큼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체계와 성과급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선옥기자

김포한강 반도유보라4차 84타입 거실

반도건설 '김포한강 반도유보라4차' 8일 오픈

상업시설 '카림애비뉴 김포'도 분양

반도건설이 경기도 김포한강신도시 마지막 분양 물량인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4차' 견본주택을 8일 개관한다.

앞서 지난 달 초 공급한 3차가 김포시 내 최단 완판 기록을 세웠다. 또 지난해 입주한 2차는 8000만원 이상 웃돈이 붙으며 한강신도시 대표 리딩 아파트로 자리매김했다.

Cc-01블록에 조성되는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4차는 지하 2층, 지상 34층, 4개동, 461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78㎡A 95가구 ▲78㎡B 91가구 ▲78㎡C 94가구 ▲78㎡D 31가구 ▲87㎡ 150가구로 구성됐다.

한강신도시 최대 상권인 구래동 중심상업지구와 바로 이마트, 병의원 등의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 2018년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구래역(가칭) 초역세권 단지이며 복합환승센터도 가깝다.

단지 앞으로는 가로공원이, 동측으로는 호수공원과 가마지천 등이 있어 산책 운동 등을 즐기기도 좋다. 솔터초 고교가 도보 거리다.

김지호 분양소장은 "구래역과 복합환승센터는 김포도시철도와 M버스의 거점으로 출퇴근 시간에도 지하철·광역버스를 앉아서 이용할 수 있다"며 "초등학교도 걸어서 통학 가능해 30~40대 젊은 부부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지는 주상복합 아파트임에도 4-bay 판상형, 3면개방, 알파룸, 서재, 주방특화 등 다양한 신평면 설계를 적용했다. 또 아파트와 상가(카림애비뉴 김포)를 분리해 쾌적성과 편의성 모두를 챙겼다. 기존보다 10㎝ 높은 2.4m의 천정고와 2.55m의 우물천장으로 개방감도 높였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010만원대로 책정될 예정이다.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15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아파트와 함께 '카림애비뉴 김포' 상가도 공급된다. 세종 동탄2에 이어 세계적인 디자이너 카림라시드의 손을 잡고 만든 3번째 브랜드 상가다.

연면적 2만4298㎡, 지하 1층 지상 2층, 204실 규모다. 미국의 그로브(Grove)와 같은 '타운형 테마 스트리트'를 표방한 게 특징이다.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976-30번지에 있다. 2018년 1월 입주 예정이다. (문의 아파트 1800-6877, 상가 1800-0084) /박선옥기자

룰 깨는 배우 될래요

사람들은 수현(30)을 '마블의 신데렐라'로 부른다. 마블 스튜디오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하 '어벤져스2')으로 단번에 세계적인 배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배우가 됐으니 '신데렐라'처럼 잘 어울리는 수식어도 없다.

하지만 수현이 '어벤져스2'에 출연하게 된 것은 신데렐라처럼 누군가가 걸어준 마법 때문이 아니었다. 데뷔 때부터 한국을 넘어 해외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일군 결과였다. 2010년 출연한 드라마 '도망자 플랜 B'에서 한 영어 연기도 해외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했다. 그리고 2012년 드라마 '브레인'을 마친 뒤 본격적인 할리우드 오디션에 나섰다.

물론 언어와 국적의 장벽을 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경험 삼아 백인 역할에 도전해본 수현은 2013년 11월 '분노의 질주: 더 세븐'의 오디션을 봤다. 결과는 실패였지만 대신 수현을 눈여겨본 캐스팅 디렉터를 통해 넷플릭스에서 제작하는 미국 드라마 '마르코폴로'에 캐스팅됐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어벤져스2'의 오디션을 봤다. "오디션 볼 때 케미스트리가 좋아서 붙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오디션을 마친 뒤 '된 것 같다'는 기분에 눈물이 났죠(웃음)."

수현의 꿈은 처음부터 배우가 아니었다. TV 앵커와 기자 등 미디어 쪽 일을 생각했다. 수현은 2005년 한중 슈퍼모델 선발대회에 출전해 1위에 입상했고 이후 2006년 드라마 '게임의 여왕'으로 배우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배우로서의 첫 경험은 3년이라는 긴 고민의 시간을 갖게 했다.

"일을 하면서 슬럼프를 겪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그런 슬럼프를 일찍 겪었어요. 현빈씨와 '게임의 여왕'을 찍으면서 연기에 대한 재미도 느꼈고 다음 작품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났어요. 그런데 이전까지 경험하지 않았던 세계와 만나다 보니 제 모든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돈과 유명세에 중점을 두고 살아간다면 크게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여전히 두렵지만 그래도 연기를 해보자고 결심했을 때 '도망자 플랜 B'를 만났죠. 배우를 하는 게 우연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노력으로 일궈낸 할리우드 진출
롤모델은 마리온 꼬띠아르
편견·선입견 얽매이지 않고 싶어

몇 차례 할리우드 오디션을 보면서 배우라는 직업에 대한 재미도 더 느끼게 됐다. 수현은 "할리우드 오디션은 나에 대한 편견 없이 오로지 연기만으로 승부할 수 있어서 더 재미있고 즐기는 편"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오디션은 제가 어디서 어떻게 자라났고 어떤 성장의 사람인지를 먼저 살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 제 이런 때문에 아무래도 '차도녀' 캐릭터에 묶이게 되더라고요. 할리우드 오디션은 오로지 제 연기만으로 승부할 수 있어서 재미있어요."

편견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것은 수현이 배우로서 지향하는 목표다. "룰을 깨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많은 작품을 하면서 새로운 모습, 여러 가지 역할에 도전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사실 젊은 여배우들이 주목 받을 수 있는 역할이 노출을 한다든가 센 역할을 하는 것처럼 전형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런 편견을 깨고 자신의 스토리를 지닌 배우가 되고 싶어요." 수현은 자신의 롤모델로 마리온 꼬띠아르를 꼽았다. 국적이라는 경계, 그리고 상업영화와 예술영화라는 경계를 무색하게 만드는 배우. 수현은 앞으로 보여줄 게 더 많은 배우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이완우)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수현

star bag

SBS '트루 로맨스' 주인공

에프터스쿨 멤버 **유이**가 SBS 새 월화드라마 '트루 로맨스'의 주인공에 캐스팅됐다.

그는 재벌 그룹 막내딸이자 푸드마켓에르비 아트생인 장윤하 역을 맡았다. 드라마 '오작교 형제들', '황금무지개', '호구의 사랑' 등으로 연기력을 인정받은 유이는 배우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다.

'황야의 7인' 출연 협의중

배우 **이병헌**이 할리우드 영화 '황야의 7인'에 출연을 고심하고 있다.

'황야의 7인'은 존 스터지스 감독이 연출한 1960년도 영화의 리메이크작이다. 안톤 후쿠아 감독이 연출하며 덴젤 워싱턴, 에단 호크, 크리스 프랫 등이 출연한다. 이병헌은 동양 무기인 활자를 잘 다루는 인물인 빌리 록스 역을 제의받았다.

황보와 아나와 한때 교제

가수 **손호영**이 황보미 아나운서와의 열애설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6일 그의 소속사 MMO엔터테인먼트는 "손호영이 황보미와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난 것은 사실이나 최근 만남의 횟수가 적어지며 관계가 소원해져 좋은 친구사이로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달 소극장 콘서트 개최

가수 **나윤권**이 다음달 13, 14일 이틀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에서 소극장 콘서트 '나윤권 세탁소'를 연다.

소극장의 특성을 살려 팬들과 한층 가까운 곳에서 호흡하는 계획이다. 소속사는 "일상에 지치고 삶에 얼룩진 분들을 위해 구겨진 마음을 뽀송하게 펴줄 관객들의 다리미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재형 '로마의 휴일'(2013), 세마 하이파이 오디오비쥬얼 스펙타큘라 에 참여하는 Tacit Group, 황규백 'Cherries'(1987, 메조틴트, 드라이포인트). /롯데갤러리·서울시립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 제공

가정의 달, 연령대별 맞춤 전시로 즐기자

어린이 위한 '어벤저스'·중년 위한 '황규백' 등 볼거리 풍성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들이 시작됐다. 휴일이 많은 5월에 미술관에서 전시를 즐기면서 가족 간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자. 아이들과 볼만한 어린이 전시부터 젊은층, 장년층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연령대별 전시를 소개한다.

◆ 아이들을 위한 '레고', '어벤저스'

롯데갤러리 본점은 오는 31일까지 '레고&플레이모빌' 전시를 연다. 레고와 플레이모빌 디오라마 20여 점, 피규어를 소재로 한 이재형·방인희 작가의 작품 20여 점이 전시된다. '타이타닉', '아메리칸 뷰티' 등 영화의 한 장면을 패러디한 아트상품들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벤저스 스테이션'은 영화 '어벤저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개봉에 맞춘 체험전시다. 관람객은 어벤저스의 주인공들과 함께 스테이션 본부의 요원이 돼 미션을 수행할 수 있고, 영화의 오리지널 의상과 소품도 관람할 수 있다.

◆ 젊은층 위한 '스펙타큘라', '루이 비통'

서울시립미술관은 클럽과 공연장에서만 보던 음악과 퍼포먼스를 미술관으로 가져온다. '세마 하이파이 오디오비쥬얼 스펙타큘라'로 이름 붙인 이번 행사는 15일 오후 8시부터 서소문 본관 1층 로비에서 열린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미술관 문은 닫힌다.

미술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일렉트로닉 뮤직과 사운드 비주얼 아트를 접목시킨 것은 물론 파티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젊은 관객들의 이목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 아티스트는 일렉트로닉 레코드 대표 아티스트 스페이스 카우보이와 미디어 아티스트 장세호, 일렉트로닉 라이브 그룹 이디오테잎 등이다.

패션 브랜드 루이 비통은 '루이 비통 시리즈 2 –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여성들의 욕망을 자극한다. 토킹 헤어스, 매직 트렁크, 장인 정신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돼 있다. 17일까지 서울 광화문 D타워에서 열린다.

◆ 중년층 위한 '황규백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은 황규백 작가의 대규모 회고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7월 5일까지 연다.

이 전시는 황 작가의 작업 세계를 담은 메조틴트 작품과 최근 유화 작품을 소개한다. 삶에 대한 작가의 성찰과 시적 함축을 담아 인생을 관조하는 모습을 보여줘 중년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작가는 최소의 단어와 운율로 쓰는 시처럼 일상의 사물을 재구성해 기억과 현재의 만남을 꾀했다.

/이현리기자 yuri@metroseoul.co.kr

카라, 일본에서 변함없는 인기

오리콘 데일리 싱글 차트 1위

걸그룹 카라가 일본에서 변함없는 인기를 과시했다.

카라는 5일 발표한 일본 싱글 '썸머직(Summergic)'이 2만 8000여 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오리콘 데일리 싱글차트 1위를 차지했다고 소속사 DSP미디어가 6일 밝혔다.

지난해 새 멤버 영지를 영입하고 4인 체제로 변신한 후 처음 이룬 쾌거다. 헤이세이점프, 모모이로 클로버Z, 퍼퓸 등 현지 인기 아이돌 그룹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소속사는 설명했다.

카라는 이 기세를 몰아 다음달 한국의 '염원한 사랑'의 리메이크 곡이 수록된 일본 정규 5집 '걸스 스토리(GIRL'S STORY)'를 발매할 예정이다.

한편 이달 말 국내 컴백을 앞둔 카라는 현재 일본에서 앨범 프로모션 활동 중이다. 도쿄와 오사카에서 열리는 악수회·사인회 등 팬 이벤트 개최 후 오는 10일 귀국한다.

/김지연기자

뮤지컬 '체스' 아이돌 스타 총출동

조권·키·신우·켄 주인공 아나톨리 낙점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체스'의 출연진이 베일을 벗었다.

'체스'의 기획·제작을 맡은 공연제작사 엠뮤지컬아트는 2AM 조권, 샤이니 키, B1A4 신우, 빅스 켄 등이 아나톨리 역에 캐스팅 됐다고 6일 밝혔다.

냉전시기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체스에 은유한 뮤지컬 '체스'는 세계 체스 챔피언십에서 경쟁자로 만난 미국의 프레디 트럼퍼와 러시아의 아나톨리 세르기예프스키의 대립을 그렸다.

아나톨리는 러시아의 체스 챔피언으로 냉전 속에서 적대국인 미국의 여인이자 프레디의 조수인 플로렌스와 사랑에 빠지며 가혹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인물이다.

거만하고 천재적인 승부사이지만 아나톨리에게 플로렌스를 빼앗기며 감정적인 동요를 드러내는 프레디는 신성우·이건명이 연기한다. 야망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플로렌스 역엔 안시하·이정화가 낙점됐다.

'체스'는 다음달 19일부터 7월 19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최지연기자 langkim@

문소리·김해숙, 박찬욱 감독과 랑데부

신작 '아가씨' 합류…6월 크랭크인

배우 문소리, 김해숙이 박찬욱 감독의 신작 '아가씨'에 합류한다.

'아가씨'는 1930년대 한국과 일본을 배경으로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게 된 귀족 아가씨와 아가씨의 재산을 노리는 백작, 그리고 백작에게 고용돼 아가씨의 하녀로 들어간 소녀를 둘러싼 이야기를 그리는 영화다. 김민희, 김태리, 하정우, 조진웅 등이 앞서 캐스팅됐다.

문소리는 극중 아가씨의 이모 역을 맡아 박찬욱 감독과 처음으로 작업한다. '박쥐'로 박찬욱 감독과 함께 했던 김해숙은 아가씨가 살고 있는 영관 대저택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여자 집사 역으로 출연한다.

주요 배역 캐스팅을 확정한 '아가씨'는 오는 6월 중 크랭크인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

THE MUSICAL 체스

CHESS

Book by Richard Nelson
Lyrics by Tim Rice
Music by Bjorn Ulvaeus and Benny Andersson
"CHESS" is presented by special arrangement with SAMUEL FRENCH, INC.
in association with BROADWAY ASIA COMPANY, LLC

2015.6.19 ~ 7.19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신성우 • 김장섭 • 김법래 • 박선우 • 이건명 • 홍경수 • 박선호 • 안시하 • 김금나 • 이정화 • 조권 • Key • 신우(B1A4) • 켄(빅스)

한화 유창식 – KIA 임준섭, 둥지 맞바꾼다

김성근·김기태 감독 "조금만 다듬으면" 상대 유망주 칭찬

한화 이글스가 왼손 유망주 유창식(23)을 내주고 선발투수 자원인 임준섭(26)과 불펜 요원 박성호(29·이상 KIA 타이거즈)를 받는 대형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한화는 유창식 외에 오른손 베테랑 김광수(34)와 젊은 외야수 오준혁(23)·노수광(25)을 KIA에 내줬고, KIA는 왼손 외야수 이종환(29)까지 주는 3대 4 트레이드를 했다.

투수진이 약한 한화는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 선발진을 보강한다는 뜻을 세웠다. 또 박성호를 불펜에 권혁과 박정진에게 몰리고 있는 불펜의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이종환은 대타 카드로 활용이 가능하다.

KIA 역시 유창식을 가다듬어 선발자원으로 쓸 계획이다. 오준혁과 노수광은 외야 수비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유창식은 2011년 1차지명으로 한화 유니폼을 입은 유망주로, 한화는 역대 KBO리그 두 번째 고액 계약금인 7억원을 그에게 안겼다. 하지만 유창식은 107경기에 등판해 16승 27패 평균자책점 5.50으로 기대 이하의 활약을 했다.

한화에 부임한 김성근 감독도 유창식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최근 부진한 모습에 결국 트레이드 시장에 내놨다.

유창식의 가능성을 크게 본 김기태 KIA 감독이 곧바로 반응을 보였고, 지난달 28일 논의를 시작해 일주일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투수를 중심으로 시작된 트레이드는 야수로 확대됐다. 한화는 왼손 대타 요원을 물색하다 이종환을 발견했고, 기존 외야수의 연이은 부상으로 고전하던 KIA는 한화의 젊은 외야수를 원했다.

임준섭은 2012년 2차 2라운드 전체 15순위로 KIA에 입단했다. 선발과 중간을 오가며 1군 무대 저경기 10승 19패 평균자책점 5.67을 기록했다. 박성호는 197㎝의 장신 투수다. 2009년 한화에 입단했지만 2010년 트레이드로 KIA 유니폼을 입었다.

김성근 감독은 "임준섭은 선발과 중간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투수"라며 "약간의 조정을 거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성적을 올릴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어 박성호에 대해서도 "한화 불펜에는 투수가 더 필요하다. 박성호는 1이닝 이상을 막을 수 있는 투수"라고 평가했다.

임준섭 / 유창식

/박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싱거웠던 '메이웨더 vs 파키아오' 거센 후폭풍

美 시민 "부상 속였다" 500만 달러 소송 … 승자는 "재대결 하자"

메이웨더 / 파키아오

싱겁게 끝난 '세기의 복싱대결'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무패 복서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38·미국)와 8체급 석권의 전설 매니 파키아오(37·필리핀)는 지난 3일(한국시간) 3일 라스베이거스의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맞붙었다. 5년간의 표류 끝에 성사된 이 대결은 메이웨더의 싱거운 승리로 끝났다.

메이웨더는 특유의 아웃복싱으로 일관했고 파키아오는 전혀 상대의 몸으로 파고들지 않았다. 경기가 끝난 뒤 수많은 복싱 팬들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기 뒤 기자회견에서 파키아오는 "오른쪽 어깨에 부상을 당고 싸웠다"며 적극적인 경기를 펼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미국 라스베이거스 시민 2명은 4일 네바다 주 법원에 파키아오와 매니저 마이클 콘츠, 프로모터 톱랭크 등을 상대로 500만 달러(약 54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파키아오 측이 네바다 주 체육위원회에 오른쪽 어깨 회전근 손상을 통보하지 않았고, 최소 2500달러(270만 원) 입장권을 구입하거나 99.95달러(11만 원)의 유료방송을 시청한 복싱팬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메이웨더는 6일 미국 스포츠 전문 방송 ESPN을 통해 "파키아오가 건강한 몸상태가 되면 다시 맞붙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하지만 파키아오는 이번 주 재활기간이 9개월 넘게 소요되는 오른쪽 어깨 수술을 받기로 해 이들의 재대결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이관준기자

잉글랜드 손흥민 영입경쟁 후끈

리버풀 이어 토트넘 가세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손세이셔널' 손흥민(23·레버쿠젠·사진)의 영입 경쟁이 뜨겁다.

영국 일간 데일리미러는 5일(현지시간) 공격진 재편을 원하는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 손흥민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토트넘에는 로베르토 솔다도와 에마뉘엘 아데바요르, 에릭 라멜라 등 공격자원들이 포진해 있지만 기대에 걸맞은 활약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3년 2680만 파운드(약 442억원)를 투자해 영입한 솔다도는 몸값을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현국 대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은 지난달 이적료 1000만~1500만 파운드(약 163억~245억원)대의 선수 영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트넘은 손흥민 이외에도 피오렌티나에 임대된 모하메드 살라(첼시)에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첼시가 살라의 이적에 동의할 가능성이 적어 토트넘 입장에선 손흥민 영입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앞서 손흥민의 에이전트는 리버풀이 손흥민 영입에 나섰다고 밝혔다. 리버풀은 손흥민이 레버쿠젠으로 이적한 2013년 이전부터 손흥민에게 관심을 뒀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팀내 최다득점 공동선두로 정규리그 11골, 독일축구연맹(DFB) 포칼 1골,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골을 기록하며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손흥민에 대한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관심이 이어지면서 몸값도 뛰어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민준기자

추신수 5경기 연속 2루타… 강정호 볼넷만 2개

5월의 사나이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사진)가 5경기 연속 2루타를 쳤다.

추신수는 6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미닛메이드 파크에서 열린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메이저리그 원정경기에서 1번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출전해 5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타율은 역시 0.151(73타수 11안타)로 끌어올렸다.

두 경기 연속 톱타자로 나선 추신수는 첫 타석에서 휴스턴 오른손 선발 스콧 펠드먼의 시속 144㎞짜리 싱킹 패스트볼을 밀어쳐 좌중간을 갈랐다. 2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전부터 시작된 5경기 연속 2루타다.

추신수는 프린스 필더의 안타로 홈을 밟아 시즌 7번째 득점도 올렸다. 이후 타석에서는 삼진, 땅볼 등으로 물러났다.

텍사스는 추신수의 2루타를 시작으로 1회에만 4점을 뽑아 7-1로 승리했다.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는 신시내티 레즈와의 홈경기에서 7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장해 2타수 무안타 2볼넷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65(34타수 9안타)로 하락했다. 피츠버그는 1-7로 패했다. /정민준기자

선종구 "별건으로 수사 불필요하게 확대"

항소심 첫 공판, 선 "무리한 수사" vs 檢 "의도하지 않아" 신경전

선종구(68) 前하이마트 회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재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 전 회장은 "성완종과 같은 별건 수사의 전형"이라며 "불필요하게 확대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이마트 2차 매각과정에서 이면계약서 작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경선(60) 유진그룹 회장은 "법원 판단에 거짓말쟁이로 낙인찍혔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 전 회장 측은 "수사가 불필요하게 확대돼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꼈다"고 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건을 언급,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선 전 회장이 다시 법정에 선 것은 지난 1심 선고 공판 이후 100여일만이다.

선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수사에 중대한 문제점 2가지가 있다"며 별건수사에 대해 운을 뗐다. 변호인은 "검찰이 1000억원대 재산 도피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가 800억원대 횡령 정관계 로비로 혐의를 확대해 압수수색 했다"며 "조사과정에서 협력업체 대표 1명이 목숨을 끊는 등 문제가 있었지만 나중에 기소에서 빠지고 가족, 지인 등으로 광범위한 수사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이 "언론에서 나온 보도를 사실인 것처럼 말해도 되느냐. 의도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따지면서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변호인은 또 "20여개의 기소사실이 모두 피고인이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친구, 지인들에 연관된 수동적 행동"이라면서 "무죄를 받은 18건은 실질적 무죄다. 부디 고려해서 헤아려 달라"고 주장했다.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연합뉴스

반면 검찰은 사실 오해, 법리 오인을 들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조항들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1차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2년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8년 2차 매각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2000억원이나 낮게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이면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2400억원 상당의 관련 주식을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선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회장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선 회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린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고개숙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6일 오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서울 종로구 서울대 연건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태아피해사례와 살균제 제조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원폭피 실경을 특고 있다. /연합뉴스

수십억 리베이트 혐의… (주)파마킹 대표 입건

의사 수백명 조사 후 처벌 기준 결정

간장약 전문의약품을 생산하는 (주)파마킹(회장 김완식)이 리베이트 건으로 6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파마킹은 수년간에 걸쳐 의사들에게 수십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파마킹의 대표와 법인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박모(54)씨 등 의사 10여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고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수백명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파마킹은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복리후생비, 차량 유지비, 수선비 등 명목으로 은밀 자금을 빼돌려 거래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영업사원을 통해 의사들에게 약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원협회의 이동길 법제이사는 "수사대상 기간이 4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의사들은 단순히 밥값정도로 생각하고 받았을 것"이라면서 "협회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리베이트의 법률적용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박씨 등 현재 입건된 의사 10여명은 각각 수백만~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리베이트 가이드라인은 300만원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파마킹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리베이트 지급 내역이 포함된 전산서버와 장부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 등과 협의해 리베이트 액수 등 처벌 기준을 정한 뒤 입건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아직 처벌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의사만 수백명에서 많게는 1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입건된 의사들은 고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의약계 리베이트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공자·수수자를 긴급체포가 가능한 수준으로 상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다. 파마킹 등 제약사들의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치선기자 ch...

檢, 홍준표 피의자 신분 8일 소환

성완종 게이트 첫 타깃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를 8일 소환 조사한다.

'성완종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8일 오전 10시 홍준표 경남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홍 지사와 일정 조율을 마치고 소환을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8명의 정치인 중 검찰의 소환 조사가 확정된 대상자는 홍 지사가 처음이다.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2011년 6월쯤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홍 지사 측에 건넸다고 주장하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4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윤 전 부사장은 아내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국회로 가 홍 지사의 보좌진에게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전 부사장의 진술에 등장한 홍 지사의 최측근 보좌진을 전날 잇따라 조사했다.

홍 지사의 보좌관 출신으로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캠프에서 재정 업무를 담당했던 나경범 경남도청 서울본부장, 홍 지사의 비서관 출신인 강모씨를 지난 5일 오후에 불러 자정께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홍 지사의 다른 측근인 김해수(58)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김씨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공기업 사장을 역임했다.

또 김씨는 이번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윤 전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로 알려졌다. /이홍원기자 hong@

法 "동시 세 여성 교제 기혼 경찰관 파면 정당"

피의자·고소인 등으로 만나 수년 간 교제

기혼인 경찰이 동일시기에 세 여성과 이성교제를 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자 법원에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이성교제로 파면 처분을 받은 A씨가 소속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가 기혼자이면서 여성 3명과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했다.

징계위는 A씨가 사건 고소인으로 알게 된 여성과 이성교제를 하면서 같은 시기에 다른 사건 피의자로 알게 된 여성과는 등산, 골프를 함께 했고 또 다른 여성과는 수년간 통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봤다.

이런 내용은 고소인으로 알게 돼 교제했던 여성이 다른 여성들과의 교제를 문제 삼아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이홍원기자

한잔의 부드러움에
봄을 깨어난다
HAPPY WATER
100%
처음처럼
부드러운 17.5도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